



사이니지 영역 넓히는 삼성전자 4



K-수소위 8일 출범, 재계 총수 총출동 11

무너진 비밀 엄수

금감원 내부자료 잇단 유출

무너진 징계 칼날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로펌 이직을 앞둔 직원이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져 지난해 라이자자산운용 자료 유출 사건을 연상케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 은행감독국의 A 선임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업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고 한 혐의로 검찰실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내규 위반으로 해당 직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당초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작량감경을 통해 징계 수위는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해당 직원은 경징계 조치로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 중이다.

A 선임은 3년 전 휴직 후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지난해 중순 은행감독국으로 복귀

했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퇴직자가 내부자료를 외부에 활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직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직원의 자료 유출 기록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실은 A 선임이 은행감독국에서 담당했던 인터넷은행 관련 자료 등을 개인 PC로 전송한 정황을 적발했다.

은행감독국은 작년 중순부터 올해까지 토스뱅크 본인이 신청과 은행업 인가, 미국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의 주요 업무를 맡았다.

문제는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금감원 인사국 측은 A 선임이 개인 PC로 자료를 전송했지만 다운로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있다. A 선임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해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10면에 계속
서지희 기자 jhsseo@·서지연 기자 sjy@

'바이오 공룡' 된 K진단키트

스페셜 리포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국내 바이오 산업에 위기가자 기회로 작용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생산한 코로나19 진단 장비는 새로운 수출 효과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K바이오 기업 덩치를 단숨에 공룡급으로 키웠다.

▶관련기사 5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진단키트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 우려는 여러 번 제기됐다. 백신은 팬데믹의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잇따른 등장으로 국내외에서 4차 대유행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던 K진단 장비업계에 성장의 기회를 또한 번 제공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자에게까지 돌아 감염되면서 지속적인 진단키트 수요를 낳고 있다.

5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분자진단키트와 신속진단키트 수출실적은 4월 3700억 원(3억1832만 달러)으로 저점을 찍고 5월 이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K진단키트 2021년 월별 수출액
(단위: 억 원) ※ 출처: 관세청



7월까지 4조1300억 수출 성과
델타변이 확산으로 다시 성장세
'에스디바이오센서' '씨젠' 주목

7월까지 진단키트 수출액은 분자진단키트 1조2600억 원(10억8508만 달러), 신속진단키트 2조8700억 원(24억8021만 달러)씩 총 4조1300억 원(35억6529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K진단키트가 전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매출이 10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던 진단키트 기업은 단숨에 조 단위 실적을 올리

는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진단키트 사업은 수익성이 높아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익률이 빠르게 늘어나는 영업 차입투자 효과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기업인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각각 43.8%, 60.1%에 달했다.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은 수많은 경쟁업체의 등장을 불러온다. 경쟁 심화로 단가가 낮아지면 이전만큼의 매출과 이익을 얻어내기 어렵다. 팬데믹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더라도 사업성이 약화할 수 있는 셈이다.

급속한 성장으로 총알을 장전한 국내 진단 장비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집중된 현재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올해 연 매출 3조 원 돌파가 기대되는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진단 플랫폼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를 검토 중이다. 씨젠은 분자진단 기술력과 의료사업을 접목한 글로벌 의료사업 추진단을 최근 출범하고, 업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이재명, 충남 이어 충북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세종·충북에서도 압승함에 따라 대선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부동산PF 등 증권사 대출채권 '부실 경고등'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161兆 '최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증권사 대출채권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P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시장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로 거론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통해 부동산 PF를 일으켰다. 저축은행이 무너진 뒤 그 빈자리를 주로 증권사가 메웠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살펴보면 3월 말 현재 증권회사의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은 161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3월 157조4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이 늘었다.

이 중 미수금이 54조5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3.8%)을 차지했다. 신용공여금 40조4000억 원(25.1%), 채무보증 36조4000억 원(22.5%), 대출금 15조1000억 원(9.4%)이 뒤를 이었다. '빚투' 개미가 급증하면서 신용공여금은 지난해 3월 대비 18조2000억 원이 늘었다.

몇몇 증권사는 매입대출채권, 대출금, 채무보증 등에서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회수가 어려워진 대출잔액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여신(대출)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해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은 고정이하여신을 말한다. 부실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16면에 계속

조성진 기자 csjin2002@

#스마트캠퍼스 #메타버스 #시선배 #블록체인 #ESG
#사람중심 #학생성공 #뉴노멀 #탄소중립 #모바일신분증

#START SMART

#고려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서울캠퍼스 : 2021. 9. 10 (금) 10시 ~ 9. 13 (월) 17시
· 세종캠퍼스 : 2021. 9. 10 (금) 10시 ~ 9. 14 (화) 18시
· 접수처 : oku.korea.ac.kr

“워라벨은 남애기... 소득 줄어 어쩔 수 없이 투잡”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두 달

30인 미만 사업장 투잡러 16만4000명 전년비 19.7%↑ “납기 맞추려 업무 강도 높아져”... 획일적 정책 적용 문제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족들이 극구 말렸는데 먹고 살려면 대리기사라도 뛰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충남 천안의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 모(37) 씨는 주 52시간제 시행 후 급여 감소가 심해지자 대리기사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 김 씨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평소 납품일을 맞추느라 업무 강도는 더 올라갔다”며 “힘드는데 소득이 줄어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투잡”을 뛰는 건 김 씨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의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조 모(33) 씨는 AI 학습 향상을 위해 온라인에서 직접 라벨을 붙이는 ‘데이터라벨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조 씨는 “경력 5년차인데 사무직이라 세금을 다 제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언저리밖에 못 받는다”며 “투잡은 필수”라고 말했다.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4000명으로 전월 대비 4.4%,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부업에 뛰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본업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부업자 수는 반비례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후 인력 부족까지 호소한다.

지방 산업단지에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 중소기업 사장은 “52시간제 시행 후 인력이 부족해 계약 업체들에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며 “임금도 줄어드니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고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주 52시간제 적용이 ‘일과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

한다. 7월 말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116개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워라벨’이 개선되지 않았다(33.6%)고 답한 비율이 ‘그렇다’는 응답률의 2배에 달했다.

근로자들 대다수(94.9%)는 워라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여유 부족(급여 감소)을 꼽았다. 또 근로자 64.7%는 연장근로를 희망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한해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과 탄력 근로제 절차 완화

를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 시·월·연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통해 소득 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으로 52시간제를 적용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임금 감소로 투잡, N잡 등으로 개인의 근로시간은 늘었다”며 “중소기업 실적에 맞춘 탄력적인 근로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가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게 해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은 너무나 달라 유연성 있는 근로시간 권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해외 원조 의존도 높은 아프간 경제 붕괴 직전”

단독 인터뷰 사빛 전 아프간 재무차관·모야 오안다증권 애널리스트

농업 제외한 전 산업 원조에 의존...인플레이·환율 가치 하락 심각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 지 일주일 만에 현지에선 아프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아프간 특성상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고 예측한다. 5일 본지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굴 막수드 사빛 전 아프간 재무차관과 오안다증권의 에드워드 모야 애널리스트의 경제 전망을 들어봤다.

사빛 전 차관은 아프간 경제 상황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현 상황대로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모야 애널리스트 역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정상적인 무역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빛 전 차관은 특히 수입과 원조에 의존하던 아프간 경제 특성에 주목했다. 그는 “아프간 교역에서 무역적자 비중은 90%에 달한다.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수입됐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30만 명 넘는 근로자에 대한 해외 지원이 중단됐고 수천 명의 아프간인을 고용하던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NGO)도 더는 아프간에 없다”고 우려했다.



굴 막수드 사빛(왼쪽) 전 아프간 재무차관과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증권 애널리스트.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아프간은 전체 노동력의 4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 60%가 여기서 소득을 내고 있다. 농업을 제외한 산업 대부분은 원조에 의존한다. 국가 차입은 4월 기준 7억8400만 달러(약 9071억 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3억3800만 달러의 두 배를 넘는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의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환율도 문제다. 6월 5일 달러 당 78.45아프가니를 기록하던 환율은 3일 86.88아프가니까지 올랐다. 수출 무역이 많지 않다 보니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아프간을 발판으로 경제 회복을 누리려는 주변국들에 대한선 사빛과 모야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모야 애널리스트는 “이번 기회로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탈레반과의 관계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제재를 받는 이란은 아프간과 기꺼이 무역할 것”이라며 “탈레반이 합법 정

부로 승인되면 아프간에도 단기적인 구제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란이 아프간에 수출한 비석유 품목만 2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빛 전 차관은 “아프간의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빈곤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란 품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며 “이란의 대아프간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수년간 아프간으로 달러 유입이 원활했고, 이 중 일부는 교환거래를 통해 이란 통화에도 활력을 줬다”며 “달러가 아프간에 유입되지 않는 만큼 이란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탈레반이 최근 뽑은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선 “처음 들어보는 경험이 부족한 인사”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마약 거래 등 지하경제 활성화 조짐에 대해선 국제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지정 기간 2021. 9. 16(목) ~ 2026. 9. 15(화), 5년간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 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품목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
-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총 최대치
-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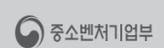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 중소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떡국떡·떡볶이떡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생산 출하량(OEM포함)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 해당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고시 제2020-101호)



위반건축물 12만 세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사각지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H빌라에 전세로 사는 한모 씨는 지난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임대 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 가입을 문의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 한 씨의 전셋집은 임대 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HUG 측은 한 씨가 사는 집은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씨의 전셋집이 위반건축물(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거실을 불법 증축한 게 화근이 됐다. 한 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차치 강동전세(전셋값이 집값과 비교해 비싸거나 집값을 넘어서는 주택) 세입자가 될까 걱정이 많다.

◇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되짜' = 위반 건축물 세입자들이 임대 보증금 보증 사각 지대에 놓였다. 임대 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은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 씨처럼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다. HUG는 위반건축물은 임대 보증금 보

보증금 회수 어려운 위반건축물 HUG, 보험 가입 서류부터 '되짜' 세입자는 보증금 떼일까 '속앓이'

전문가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집 주인·세입자 퇴로 열어줘야"

증 가입 서류조차 안 받아준다. HUG 관계자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위반건축물은 낙찰률이 낮아 회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임대 보증금 보증 제도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해주는 상품.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이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회수. 올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가입 의무화
- 위반 건축물 소유자·세입자는 원상 복구 전까지 가입 불가

수도권 지역별 위반건축물 (단위: 건, 2021년 2월 기준)



◇ 세입자에게 '주거 불안' 부메랑 = 이런 상황에서 위반건축물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다. 위반 상황을 바로잡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꼬리표를 떼면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정 공사가 진행될 동안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다른 한 가지 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위반건축물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지자체에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위반건축물까지 끌어들여 등록임대주택 확보 실적을 올릴 땐 언제고 이제와 등록을 말소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지자체도 직권 말소에 소극적이다. 세입자가 무제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 사라지면 지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세입자 주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셈이다.

◇ 전국 위반건축물 12만 채 넘어 = 위반 건축물 소유주에겐 선택지라도 있지만, 세입자에게 다른 대안도 없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임대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주길 바라는 것뿐이다. 올해 HUG에 접수된 임대 보증금 보증 사고 규모가 7월까지 누적 306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적발되는 위반건축물 수로 볼 때 일부 집주인·세입자 문제로 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국의 위반건축물 수는 올 2월 기준 12만 채가 넘는다. 서울에서만 4만7587채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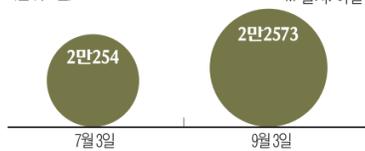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토부가 무리하게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진퇴양난 상황이 됐다"며 "무책임하게 직권 말소를 권고할 게 아니라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중화 기자 pbell@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철회하니 서울 전세물량 두 달새 11% 증가

은마아파트 전세물량 3.3배 ↑ 거래대금 '10억 → 7.8억' 하락 업계 "규제의 역설 재확인된 것"

서울 전세 물량 및 전셋값 추이 (단위: 건) ※ 출처: 아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위: 원, 전용면적 76㎡형)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같은 기간 전세 물량이 36건에서 136건으로 3.8배 급증했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규제를 풀니 그간 막힌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규제의 역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재건축 추진 단계와 입주율을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는 전셋값도 그간 물량 부족으로 고공 행진하다가 점차 하향 안정화 조짐을 보인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형은 7월 10억 원에 전세 계약됐으나 지난달 9월 9억 원, 이달 1일 7억8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가을철(9~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6304가구 수준으로, 작년 동기(7740가구)보다 18% 감소해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두달간 마포·중·양천·강서·서대문·송파구 등 6곳은 전세 물량이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전히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귀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법안 폐지로 재건축 추진 단계와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계약갱신 4년 임대를 예상한 집주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 ③

바람이 말합니다

지금의 순풍이 삼시간에 폭풍우로 변할 수 있다고

디지털 자산 투자도 풍문에 휩쓸리지 말고 기술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나침을 경계하세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투자하세요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가 함께 실천합니다 **UPbit**

SSG닷컴·롯데온 '화색'... 쿠팡·마켓컬리 '노심초사'

국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희비 갈린 업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기로 하면서 새벽 배송 시장에서 또 한차례 뜨거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를 새벽 배송에 활용할 수 있게 된 SSG닷컴과 롯데온은 날개를 달게 된 반면, 새벽배송에서 우위를 점해온 쿠팡과 마켓컬리 등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할 처지다.

◇9월 정기국회서 허용 추진=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391회 정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되 대형마트처럼 주말을 강제하지 않고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는 현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통상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의무휴업일과 지정부터 익일 10시까지 영업을 제한되는 시간대

대형마트, 기존 점포 활용하면 별도 물류센터 없이 즉시 배송

쿠팡, 신선식품 서비스 제한적 마켓컬리, 실탄 확보 IPO 내년

에는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통해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그동안 전통 유통업체를 기반으로 한 신생 이커머스의 숙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100억 원에 불과하던 시장 규모는 2018년 4000억 원, 지난해 2조 원으로 200배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커머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15%를 훨씬 웃돌아 관련 업계로서는 균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

쿠팡과 마켓컬리가 새벽배송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기존 유통업체들로서는 물류센터 건립 비용이 문제였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려면 따로 물류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통



상 중대형 규모의 자동화센터를 지으려면 3000억 원가량이 든다. 운영시간이 제한된다고 대형마트 점포를 멀쩡히 두고 물류센터도 또 짓기에는 부담이 컸다.

이런 이유로 대형마트 계열사인 SSG닷컴과 롯데온은 일부 지방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지정 시간대 배송 서비스만 운영했다. 홈플러스는 시간 예약 배송만 가능하다.

SSG닷컴의 경우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네오' 3곳에서 하루 8만 건의 배송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이마트의 PP(피킹엔 파킹)센터에서 5만 건을 담당하는데, 대형마트 점포를 새벽배송에 활용하게 되면 새벽배송 취급 품목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유안타증권은 점포를 통한 새벽배송이 가

능해질 경우 대형마트 점포의 일배송 캐파가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4시간 새벽배송이 가능해진 대형마트는 온라인 전문 이커머스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팡·마켓컬리 '긴장' = 유일하게 전국 단위 새벽배송에 나서고 있는 쿠팡으로서는 강력한 경쟁자들을 만나게 됐다. 쿠팡은 현재 170개 내외의 물류거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콜드체인을 갖추지 못해 신선식품 취급은 제한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마트는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 수가 트레이더스를 포함해 최대 160개이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각각 138개, 113개다.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 후 확보한 5조 원대 실탄으로 광주 물류센터를 비롯해 완주, 창원, 김해 등에 물류 거점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추후 46개 넓이 규모의 유통업체 자체 물류센터 최대 규모인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물류센터는 이르면 연내 완공되지만, 창원과 김해 물류센터는 이르면 2022년부터, 완주는 2023년, 청주는 2025년 완공이 목표다. 그 사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안전이 통과되고, 대형마트 3사가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전국 매장을 활용해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면 파이를 뺏길 수밖에 없다.

원조 새벽배송 업체 마켓컬리 역시 난감하다. 5월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에 이어 이달 초 대구에 진출한 마켓컬리는 연내 새벽배송 전국 확대가 목표다. 지방에는 자체 물류센터가 없어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출고하면 CJ대한통운이 배송을 맡는 방식이라 취급 상품수가 제한적이다.

누적 투자금이 6500억 원에 달하는 마켓컬리지만 물류센터 한 두개 추가로는 전국을 커버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국내 증시 입성을 추진해 실탄 확보를 노리고 있지만, 빨라야 내년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삼성전자 '퀵서비스 레스토랑 사이니지' 공략 나선다

가상 공간서 자동주문 체험 사이니지 유지·보수로 확대

삼성전자가 디지털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지속 성장 중인 '퀵서비스 레스토랑(QSR)' 시장을 공략한다.

5일 삼성전자는 퀵서비스 레스토랑(QSR) 및 중소기업(SMB,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을 위해 설계된 디지털 사

이니지 제품을 가상 공간에 선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카페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고객을 QSR 또는 SMB 환경의 가상 투어로 안내해 디스플레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업이 비전을 실현할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 투어 방문객들은 전형적인 퀵서비스 레스토랑을 들여다보며 삼성 크리스탈 UHD, 야외 LED 및 비즈니스 TV, 풀 아웃도어 사이니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삼성의 최첨단 자동 주문 키

오스크가 고객과 매장 점주 모두를 위해 쇼핑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이니지 전체 라인업은 가상 쇼케이스 전반에 걸쳐 전시된다. 제품 및 솔루션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고객 성공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NPD그룹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급증하며 현지 QSR 매출이 올 하반기에 90억 달러(약 10조4130억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 캐나다 국민 카페로 불리는 '팀호튼' 드라이브 스루에 아웃도어용 디지털 사이니지를 대량 공급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TV와 컴퓨터 모니터, 모바일에 이은 '제4의 스크린'으로 불린다. 매장 키오스크와 메뉴 및 광고 안내판 등으로 활용되는데, 주문시간 단축과 원격 메뉴 교체 등 매장 운영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2009년 이후 12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다. 시장조사업체 오픈디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사이니지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2%이며, LG전자는 14.5%, NEC 5.8%, SeeWo 4.0%, 샤프 3.60% 순이다. 송영록 기자 syr@

/미·중 자본시장 디커플링 2題/

중국 기업, 美 IPO 1년 4개월 만에 '제로'

50개사 SEC 승인 못 받아 中,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 본토·홍콩서 자금 조달 압박 기관, 자금운용 리스크 커져

미국과 중국 자본시장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속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공개(IPO) 건수가 7월 1건에 그친 데 이어 8월은 1년 4개월 만에 단 한 건도 없었다고 4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금융정보업체 딜로이트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상반기에는 자금조달액과 건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7월 상순 시점에 최소 약 50개사가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닷케이는 전했다.

앞으로 디커플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SEC는 중국 기업 IPO에 대해 지난 달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변동지분실체(VIE) 활용 여부나 중국 정부의 사업 방해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해 더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 상장을 계획하는 한 중국 호텔 운영업체는 8월 말 IPO 안내서를 다시 제출, 중국 정부가 사업에 미칠 가능성을 설명했다.

SEC는 기존 상장사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기업은 미국의 상장 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사를 거부했지만, 앞으로는 감사를 받지 않으면 이르면 2024년 상장 폐지된다. 그동안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은 감사를 거부해도 되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아왔다. 유력한 중국 기업 상장 유지로 월가 금융기관들이 고액의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당국이 이를 묵인해왔다. 그러나 미·중 대립

격화와 일부 중국 업체의 회계 부정으로 특별 대우는 어려워지게 됐다.

중국 정부는 2일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가 아니라 본토와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새로운 압박이라고 닷케이는 풀이했다. 신설되는 베이징 거래소는 상장 심사 장애물을 낮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중 자본시장의 디커플링 속에서 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운용 리스크는 훨씬 커지게 됐다. 세계 유수의 기관투자자들은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빼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운용자산 총액으로 미국 2위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기금이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상위 10개사에 중국 양대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그룹홀딩과 텐센트홀딩스가 포함됐다.

유라시아그룹의 클리프 쿨찬 회장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중시하고 자국 기업에 대해 국내에서의 자본 조달을 강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헤지펀드, 美 주식까지 외면

中 정부 규제, 외국 기업 영향 펀드, GM 등 지분 26% 처분 "中 성장둔화·규제 위험 요소"

중국 정부의 규제 여파에 중국 기업 투자를 경계하고 나선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주식까지 외면하기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골드만삭스 데이터를 인용해 헤지펀드들이 라스베이거스샌즈와 제너럴모터스(GM) 등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S&P500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종목들은 외면을 받았는데, 그 여파가 미국 종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주요 펀드매니저들이 지난달 이들 기업을 상대로 기록한 순보유자산 규모는 한 달 새 26% 증발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거래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을 묶은 바스켓 주가는 6월 이후 미국증

시 벤치마크인 S&P500지수보다 1%포인트 뒤처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분위기는 중국 당국이 기업에 대한 규제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면서 외국 기업에까지 부담이 커진 탓이다. 블룸버그는 과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 등이 중국 정부의 규제가 중국 내에서만 벌어지는 국지적 위협으로 치부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커먼웰스파이낸셜의 브래드 맥밀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헤지펀드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하의 중국 위치에 대해 점점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외국 기업에 문을 열고 있지만, 이들은 중국이 계속 호의적일 것이라는 것에 베타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인디펜던트어드바이저의 크리스 자카렐리 CIO 역시 "중국과 미국 증시의 연결고리는 다른 나라만큼 강력해진 않지만, 중국의 심각한 경기침체 위험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진 못할 것"이라며 "현재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은 성장 둔화와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 등 이중고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지난해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360개 K진단키트 수출 허가 “정점 아직 안 왔다”

몸집 불리는 진단장비업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진단장비업체가 올해에도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으로 진단장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었다. 확산세가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확진자 폭증으로 진단을 통해 확진자를 가려내고, 변이의 이력을 파악해 그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연 매출 1000억씩 조(兆) 단위로=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올해도 가뭄이 1조 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평가(증권사 추정치 평균)에 따르면 씨젠은 올해 전년보다 소폭 성장한 1조244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씨젠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만 해도 매출이 122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무려 822% 성장한 1조12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도 매출의 절반을 넘긴 6555억 원을 기록했다.

씨젠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분자진단 장비 가격을 낮춘 정책 덕에 하반기에도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씨젠 측 관계자는 “각종 변이 진단이 가능한 멀티플렉스 기술과 함께 상반기 시행한 전략적인 가격 정책 효과로 3분기 이후 진단 장비 부문 매출이 증가할 것”이

백신 접종 늘었지만 변이도 확산 씨젠, 올해도 1조클럽 유지 전망 에스디바이오센서, 매출 23배 ↑ 수출 계약 늘어 하반기 더 기대

라며 “2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진단키트 가격 인하로 매출은 1분기보다 줄었지만 절대적인 수출량이 늘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의 수출량이 전 분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말했다.

씨젠은 하반기에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앞서 글로벌 바이오 진단 장비 기업 바이오라드(Bio-Rad)와 분자진단 시약과 장비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처(FDA) 공동 승인 및 유통 계약을 맺었다.

신속항원 진단장비 전문업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23배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2019년 730억 원이던 연 매출이 1조6862억 원으로 치솟은 것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9595억 원의 매출을 올려 벌써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섰다. 에프앤가이드는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올 매출이 전년보다 108% 증가한 3조305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신속항원진단 장비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 중인데 이 제품은 올 상반기에만 1조799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반기에는 지난달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자가진단 장비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제품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유럽과 인도 중심에서 하반기에 아시아 쪽 공공 입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멕시코 등 해외 입찰을 진행 중이며 미국과 뉴질랜드 등 신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마시스와 랩지노믹스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세 자릿수(402%, 260%) 성장률을 기록했다. 휴마시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465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매출을 넘어섰고, 랩지노믹스 역시 상반기에만 879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매출(1195억 원) 달

성이 멀지 않았다.

◇수출 성과 이어가는 K진단키트=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 수출액은 30억4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성장했다. 의료기기 품목 가운데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진단용 시약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28.4% 성장한 4억8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수출용 허가를 받은 진단 장비는 116개사 360개, 이 가운데 분자진단(PCR) 제품은 150개, 항원진단은 106개, 항체진단은 104개였다.

수출용 허가를 받은 국내 진단 장비는

해외에서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는 등 하반기에도 성과가 눈에 띈다. 휴마시스는 7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4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진단 장비 공급 계약을, 수젠텍은 7월과 8월 베트남에 각각 183억 원, 54억 원의 코로나19 항원진단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피에이치씨는 7월 말레이시아에 143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진단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들의 대규모 해외 공급 계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진단장비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가 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단 장비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저가형 제품이 많이 나오고 중국 등 일부 시장에서 가격이 하향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나 국제기구를 통한 입찰로 제품 공급자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뿐 아니라 어디서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성능을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라 성능 고도화로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팬데믹 이후 돌파구 필요

코로나 목매기보다 해외 경쟁력 높여야

양질의 진단 장비 개발하고 기술력 갖춘 기업 인수 주력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국내 진단장비 업체들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다. 이들 업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품목 매출 비중은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 차지한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 이후까지 업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진단 장비에 대한 수요가 줄더라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 확장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 질적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잘하는 것 키우자”... 전문성 살려야= 씨젠은 ‘분자진단 시약 제조’ 회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핵심은 분자진단 시약의 개발 및 공급이다. 씨젠은 코로나19 진단 장비 외에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성 감염증 등 소화기·감염병 검출을 위한 150여종의 진단 시약을 보유하고 있다. 진단 시약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장비 수출을 통해 록인 효과(고객 묶어두기)를 꾀하고 있다. 일반 병원 등 분자진단 접근성을 높이는 분자진단의 일상화도 목표로 삼고 있다.

씨젠 관계자는 “전 세계에 씨젠 진단 장비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설치됐다”며 “이 장비는 자사 시약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진단 시약 포트폴리오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도 현재 진단사업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력 제품인 코로나19 신속진단 장비 ‘스탠다드 큐’는 물론 현장진단(POC) 기기 등 진단 가능 제품을 꾸준히 개발·수출해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 공모자금으로 첨단 기술기업인 수합병을 추진해 디지털 분자진단으로 사업 확대도 계획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POC 확진 검사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코로나19 진단을 포함한 150여 종 이상의 진단 가능 제품 개발 및 수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개발 업체, 자회사 설립·인수= 기존 진단 장비 사업 외에 신약개발 등 사업 확장을 노리는 업체도 있다. 랩지노믹스는 액체 생체검사 기반 플랫폼을 보유한 항암 신약 개발 기업인 에이비온에 투자하고 시프트바이오와 100억 원 규모의 항암치료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 유전체 분석서비스(PGS) 사업 강화를 위해 쥬비스, 휴온스, 핏핏 등의 업체들과도 계약을 마쳤다.

신재훈 랩지노믹스 이사는 “지난달 24일 신약사업본부를 출범해 본격적인 신약개발 행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바이오니아는 자회사 씨나젠 테라퓨틱스를 설립하며 신약개발을 가속화한다. 알츠하이머, 원형탈모,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특발성 폐섬유증(IPF) 등 15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섬유증 치료 신약후보물질(SAMIRNA-AREG)에 대해 연내 임상 1상을 신청한다.

업계는 양질의 진단장비를 시장에 내놓는 것은 물론 기술력을 갖춘 기업 인수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동시진단 장비처럼 다른 변이에 맞는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내 상위 업체들의 자본력을 통해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우 수습기자 burning@

바이탈뷰티 명작수출
건강기능식품
600g (20g x 30캡슐)

건강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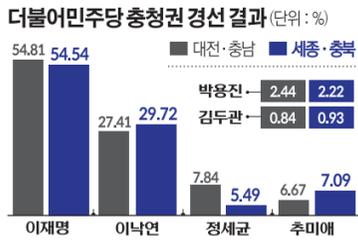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충남 이어 충북 압승 이재명 '대세론' 탄력



54.7% 얻어 28.2%의 이낙연 압도 캐스팅보트 충청서 경쟁력 입증 남은 일정 '대세론' 가속화 전망 이재명 "지역 공약 확실히 실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전·충남 과반 득표에 이어 세종·충북에서까지 1위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대세론'을 굳히는 양상이다. 첫 순회경선 투표 결과가 나머지 일정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대세에 편승하는 소위 '밴드왜건'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7035표(득표율 54.5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3844표 (29.72%)로 2위를 기록했다. 두 지역 합산 결과 이재명 54.72%, 이낙연 28.19%였다. 전날(4일) 대전·충남에서 치러진 민주당 첫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득표하며 압승을 거둔 가운데, 세종·충북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 상태였다.

특히, 충청권은 주요 선거 때마다 전체 민심을 살필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충청권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잣대, 시금석 또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다"며 "충청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몰아준 건 이재명이 굳히기에 들어가는 수순이라도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또, 너도나도 본선 경쟁력을 자신해 온 상황에서 관리당원 표심 또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 이는 일반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으로 당심 또한 민심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평론가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게 몰표가 간 것"이라며 "충청의 표심 결과가 전체 민주당

당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충청 표심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 표심까지 작용하면서 전체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4일 발표된 대전·충남 경선투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54.81%의 득표율로 2위 이낙연 후보(27.41%)에 정확히 더블스코어로 이겼다. 민주당은 5일 오후 3시 30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 컨벤션센터에서 세종·충북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세종·충북 대의원과 현장투표 사전신청자들의 선거를 진행했다. 6명 후보(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의 정견 발표에 이어 개표가 진행됐으며, 6시경 결과가 발표됐다. 투표는 대의원·관리당원과 현장투표를 신청한 국민·일방당원 등 2만3803명이 실시했다. 온라인·ARS(자동응답)·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충북, 세종 지역 표심을 향해 다른 후보들과 공약은 비슷하지만 이행률이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세종시 대통령직무실, 세종의사당, 충북 친환경 관광벨트,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철도망, 첨단산업벨트 조성. 저의 공약이다. 다른 후보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며 "세종·충북 발전은 공약 차이가 아니라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행동으로 실천해 온 저 이재명만이 세종·충북 공약을 확실히 지키고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황교안(왼쪽부터), 최재형, 장성민, 장기표, 윤석열, 원희룡, 박찬주, 박진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에서 서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는 '역선택 방지조항 제외'를 주장하며 불참했다. 연합뉴스

홍준표·유승민, 서약식 불참...경선 파행 기로

洪·劉 "역선택 배제 안 돼" 고수 이준석 "행사 불참 우려스러워" 정홍원 위원장 사의 번복 해프닝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갈라졌다. 일부 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정홍원 선관위위원과의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사퇴 의사까지 표명했으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관위에 힘을 실어주며 중재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정선거서약식을 진행했다. 서약식 후에는 각 후보와 정 위원장 간 간담회가 이뤄졌으나 일부 후보들은 불참했다.

홍준표·유승민·하태경·안상수 후보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당 선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준비위원회의 원안을 즉각 확정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정경선서약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경선을 뒤집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최재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을 철회하면서 "역선택 방지를 주장한 바 있으나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것이 저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논란을 그치고 선관위를 신뢰하고 결정을 기다리자"고 요구했다.

홍 후보는 "이제 윤 후보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 역선택 운운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룰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세를 거스르는 어처

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정된 경선위 안을 받아들이고 순리로 가시라"고 압박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만류로 사퇴 의사를 번복하는 등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에 대한 지도부의 신뢰는 굳건하다"며 "유일한 책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임해주시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선관위가 사심없이 정한 룰에는 협력하고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 그리고 같이 우리와 힘을 모으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고 당부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여야 대권주자들 맹공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를 향해 여야 대권 주자들이 맹공에 나섰다. 여기에 국민의힘 경선 규칙을 두고 '역선택 방지' 조항에 윤 후보만 찬성하는 뜻을 밝혀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

담회를 열고 윤 후보를 향해 "진실이 아닌 길 바라지만, 알고도 방지했다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 자체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는 이제 더 이상 무소불위의 검찰총장 신분이 아니고 깨알 검증을 피할 수 없는 대권 후보"라며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막연히 큰소리친다고 빠져나갈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

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후보께서 국민 앞에 나와서 선제적으로 정직하게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도로 보인다"며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식의 우격다짐만으로는 수습이 안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러 주자가 비판에 나선 데 이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도 최재형 예비후보가 찬성 견해를 철회하면서 윤 후보는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박준상 기자 joooon@

모두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진 30년. 세상 모든 아이들 편에서 함께한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37년의 동행 37년의 성장

37년동안 5,000여명의 참가자.
37년동안 37개의 트로피.
37년동안 211억원의 상금.
37년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도전.
37년동안 바라왔던 하나의 꿈은
대한민국 골퍼들의 희망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

**대한민국 골프의 내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다
The Tradition Continues

제37회 신한동해오픈
2021.9.9~12 / 베어즈베스트 청라 G.C.

신한동해오픈 재일동포 골프 동호인들이 고국 골프발전과 국제적 선수 육성을 위해 1981년 시작한 대회입니다. 고국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대회명을 동해오픈이라 이름 지었고, 올해도 서른일곱번째 대회가 이어지며 그들의 바람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추석 연휴 8명>

오늘부터 수도권 6명 모임 '위드 코로나' 실험

백신 인센티브 효과 당분간 적어
접종완료자 적은 데다 대부분 고령
직장·지인 모임 다음 달도 어려워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인 셈이다. 다만, 6일 사적모임 집계인원 제외대상인 전 국민의 22.5%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특수시설 중 사·입소자와 70대 이상 고령층이라 '백신 인센티브' 확대 효과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이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가정·식당·카페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를 포함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수도권 등)은 최대 6명, 3단계 지역은 8명으로 늘어난다.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 3단계 지역에서 4명까지만 모임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에 더해 4단계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시부터 10시로 완화한다. 추석 연휴(17~23일) 중에는 모든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접종률 상승 추세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이다. 전하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접종률 확대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완화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혜택 확대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인센티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6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 2주를 경과한 인원(22일 이전 접종자)은 전체 인구의 22.5%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 사적모임이 어려운 의료·요양·교육·보육시설 종사·입소자와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70세 이상과 우선 접종대상을 제외하고 사적모임 집계인원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65~69세의 43.9%, 60~64세의 2.1%에 그친다. 50대는 2차 접종이 개시됐으나 모더

나 백신 수급 불안으로 접종간격이 6주로 늦춰져 1차 접종자 상당수의 접종 완료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추석 연휴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34.6%다. 50대도 1.3%에 불과하며, 40대 이하는 아직 2차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다.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제외가 접종 완료 14일 뒤부터 적용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회식 등 일상적인 직장·지인모임은 다음 달까지도 어렵다. 이에 따라 백신 인센티브는 접종률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활동제한을 푸는 중기적 방역대책으로서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9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같은 요일(8월 29일, 1619명)과 비교해선 129명 줄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지자체·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정부·카드사 사칭 스미싱주의보

문자로 본인 인증 가능해
출처 의심 문자 클릭 주의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통신 3사 휴대폰 본인인증 'PASS'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 3사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자체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대폰 본인인증은 자신의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인증번호를 받거나

PASS 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문자 인증 방식은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PASS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생체 인증이나 6자리 핀(PIN) 번호 인증 등을 통해 더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마칠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용자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한번 더 의심해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심 문자로 판단한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추석에는 안와도 더” 5일 충남 당진시 거리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9월 17~23일) 가족모임에 한해 시간대 제한 없이 최대 8인 모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임 수 없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 충격, 취약계층 집중”

현대경제연구, 경기 회복 저해 우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한편 "내수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금융 불균형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위험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가 금리 인상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한 과잉유동성 회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에 한국은행의 정책적 판단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최근 경기 양극화 상황에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

김준형 기자 junior@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생계형 대출이 많은 저소득 가구,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에는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의 악화',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역시 연구원이 뽑은 한국 경제 위험 요인이다.

연구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분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또 대유행이 발생하면 △소비 심리 위축 △소비 지출 감소 △내수 불황 △소득 감소 △소비 여력 위축 △소비 침체의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관련 정책 역시 "단기적으로 올해 4분기에 기간 구조상의 재정 지출 공백이 우려된다"며 "일시적으로 경기 방어 가능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68%, 하반기 채용 계획 없거나 미정

54% 미정, 13% 안 뽑겠다
경력직·수시채용 비중 늘어

대기업의 10곳 중 7곳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채용시장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67.8%는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신규채용 계획 미수립 기업은 54.5%, 신규채용 '0'인 기업은 13.3%였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대기업 비중은 32.2%에 그쳤다. 이 중 작년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53.8%,

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다는 기업은 35.9%, 작년보다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은 10.3%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32.4%)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기존 인력 구조조정 어려움(14.7%)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1.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회사가 속한 업종 경기 호전 전망(38.1%)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인재 확보(33.4%) △대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의식에 대한 반응(9.5%) △ESG,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또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인력수요 증가(9.5%) 등을 이유로 응답했다.

채용 추세로는 언택트 채용과 수시 채용

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하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에 대하여 언택트 채용 도입 증가(24.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경력직 채용 강화(22.5%), △수시채용비중 증가(20.3%)를 주목했다.

또 올해 대졸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한 기업 비중은 63.6%로, 작년(52.5%) 대비 11.1%p 증가했다. 한편, 공개 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36.4%에 그쳤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노동·산업 분야 등 기업규제 완화(38.8%)를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은 △신산업 성장 동력 육성 지원(25.6%) △고용증가 기업 성과보수 확대(24.0%) △정규직·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5.8%) 순이었다. **이대수 기자 citizen@**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

8월, 햇과일 영향 국민체감과 거리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다만 추석 주요 성수품인 과일, 축산물, 곡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9.1% 상승해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오던 두 자릿수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채소류 출하량 증가, 햇과일 본격 출하 등 때문이란 분석이다.

농축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사과·배 등 과일류는 5.9%포인트(P), 축산물물은 4.7%P, 쌀 등 곡물류는 1.2%P, 기타농산물물은 0.7%P 기여했다. 전년동월비로 보면 과일은 사과(70.0%), 배(61.6%), 수

박(38.1%), 참외(13.9%)가 많이 올랐고, 축산물은 달걀(54.6%), 돼지고기(11.0%), 소고기(7.5%)가, 곡물류는 쌀(13.7%), 콩(19.7%) 등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채소류는 3.4%P 감소했다. 애호박(50.2%), 대파(32.9%), 배추(30.2%), 당근(23.5%), 깻잎(20.6%), 무얼무(10.6%), 풋고추(6.2%), 가지(5.7%)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 시금치와 상추도 생육 여건 개선,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출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9월부터는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는 조생종(사과-아오리)이 출하되고 있고 중생종(사과-홍로)이 본격 출하되는 9월부터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배(신고)도 본격 출하되는 9월부터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시진핑 '공동부유·홍색규제' 제2의 문화대혁명 되나

시 주석 장기집권 토대 마련 작업 빅테크·사교육·엔터 전방위 규제 '마오쩌둥 탄압과 닮은꼴' 지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개막한 2021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에 온라인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스

최근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그 중심에는 '공동부유'가 있다. '모두 잘 살자'라는 뜻의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전방위적으로 사회주의 개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공동부유를 위한 시 주석의 '홍색규제' 행보로 '제2의 문화대혁명'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공동부유' 슬로건의 목표가 빅테크 기업과 사교육 시장을 넘어 비디오 게임과 연예인, 아이돌 팬덤 문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행보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대혁명은 1950년대 말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된 마오쩌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회복을 위해 주도한 극좌 사회주의운동이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 당시 '만민 평등'을 외치며 자신의 사상을 찬양하게 했으며 부르주아 가치를 배척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탄압했다.

블룸버그는 "공동부유'와 이와 동반된 각종 규제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제2의 문화대혁명'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예가 이달부터 국가 교육 과정에 도입된 '시진핑 사상'이다. 이달 새 학기가 시작된 중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전문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이 '시진핑 사상'을 공부한다. 블룸버그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시진핑 사상'이라는 교과목을 새로 도입하고, 18세 미만 아이들의 주말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금요일·주말·공휴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만 제한하는 규제가 나온 것은 우연이

공동부유 = '모두 잘 살자'라는 공산당의 슬로건이다. 과거 덩샤오핑은 공동부유 수단으로 중국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하는 노선을 취했으나 시진핑 정권은 고소득층과 기업의 소득을 조절하고 사회 환원을 장려하는 정책 등을 위한 슬로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홍색규제 = 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의 통제와 규제에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이 사회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인 규제 압력을 펼치면서 홍색규제는 중국식 규제를 가리키게 됐다.

아니다"고 꼬집었다.

공동부유를 위한 홍색규제의 시작은 빅테크 기업이었다. 알리바바그룹홀딩을 필두로 중국 빅테크 기업은 '공동부유' 기조 아래 견제와 규제 대상이 됐다. 공동부유를 위한 사회환원을 하라는 압박도 커져 알리바바가 2025년까지 자선단체에 155억 달러(약 16조 원)를 기부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의 '자진 납세' 격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잇달아 퇴출하며 기강을 잡고 있다. 드라마 '황제의 딸', 영화 '적벽대전' 등에 출연해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톱 배우 자오웨이와 탕새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출연했던 작품이나 흔적 등이 각종 온라인에서 사라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아프간 카불 공항, 국내선 운항 재개 4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제공항 입구에서 공항 직원들이 검문소 앞에 줄 서 있다. 탈레반 특수부대인 '바드르 313' 대원들은 공항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 하고 있다. 카불 공항은 카타르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이날 국내선 일부 노선 운항이 재개됐다.

고용 회복세 꺾인 美, 연준 테이퍼링 늦추나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8월 비농업 고용자 수 23.5만 명 증가 그쳐... 긴축 발표 회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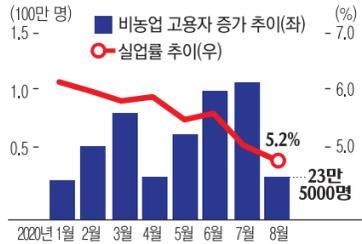
미국 고용 회복세가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한풀 꺾였다. 고용지표 둔화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결정도 연기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23만5000명 증가에 그쳐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닷컴 전성기(72만 명 증가)와 7월 수정치(105만3000명 증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실업률은 5.4%에서 5.2%로 하락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시장 회복이 둔화했다는 인식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리디아 부소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고용지표 둔화와 델타 변이가 경제 하방 압력 위험으로 남아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가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끼치

미국 월별 비농업 고용자 증가 및 실업률 추이



면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테이퍼링 발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 전에 더 강력한 고용 지표가 필요하다"며 "실망스러운 지표는 테이퍼링 절차에 대한 연준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여전히 연내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실제 시행 시기는 일러도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조셉 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테이퍼링이 9월에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한다"며 "고용지표가 일회성에 머물지, 계속 둔화할지 지켜보는

게 앞으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매크로폴리시퍼펙티브의 줄리아 코로나도 회장 역시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고용지표는 9월을 (테이퍼링) 테이블에서 치워버렸다"며 "다만 연말 테이퍼링 발표는 여전히 기본적인 입장이며, 향후 몇 달간 발표될 지표는 발표 시점과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KPMG의 콘스탄스 헌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불확실성이 극도로 치솟은 상황에서 12월 발표가 더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테이퍼링 발표 자체를 내년 초로 미룰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사실상 올해 테이퍼링 결정을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11월과 12월 FOMC 정례회의로 한정된 만큼 고용 회복이 더딜 경우 연준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번 지표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지 알지 못한다"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림 뿐"이라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日 '올림픽 잔혹사' 스가 총리 퇴진

차기 자민당 총재 입후보 포기... 유력후보 2명 모두 '중국 매파'

갖은 진통 끝에 2020도쿄올림픽을 개최했던 스가 요시히데(사진)도 역시 일본 총리 올림픽 잔혹사를 피해 가지 못했다.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스가 요시히데의 뒤를 이을 신임 일본 총리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답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보자가 난립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지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올해까지 총 4차례의 올림픽이 개최됐고 그 이전 올림픽 때는 모두 개최한 해에 총리가 교체됐는데 올해도 스가 총리가 전날 퇴진 의향을 밝히면서 징크스가 이어지게 됐다.

스가 총리는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는 총리 연임 포기를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은 코로나19 사태 악화 속에서 올림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지지도가 역대 최저로 추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가 집권한 지 1년 만에 퇴진 의향을 밝히면서 자민당은 '세대교체'와 '파벌'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일본 현지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부조사위원장, 고노 다로 행정개혁

의사를 밝힌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신임 총리의 최대 과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기시다와 고노 모두 중국에 맞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기시다의 간 자민당 내에서도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미사일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최근 매파 성향 목소리를 부쩍 내고 있다.

지난해 일본 방위성 수장을 맡았던 고노 행정개혁담당상은 일본 근처에서 중국 전투기가 출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 군용기 출격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관광산업과 무역 등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서 이들 후보가 총리가 된 후에도 강경 입장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중정부, 디디추싱 지분확보 추진 "베이징시, 권소시엄 참가 검토"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사업 규제를 넘어 이전 직접 투자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시가 디디추싱 투자 권소시엄 참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권소시엄은 중국 국영기업들이 주도한 것으로, 투자가 성사된다면 디디추싱에 대한 정부의 경영 개입이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국영 투자자들은 디디추싱의 의결권을 노리고 있다"며 "향후 데이터 관리와 주요 기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투자는 지난해 미국에 상장한 전 기차 니오의 중국 사업부 투자와 같은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권소시엄에 베이징관광그룹 관계사인 서우치그룹을 비롯해 베이징에 기반을 둔 여러 국영기업이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베이징관광그룹은 여행사와 쇼핑몰, 레스토랑, 호텔 체인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베이징시를 대표하는 국영기업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번 투자를 통해 기업들은 주주총회 거부권과 이사회 의석, 베이징시는 수억 명의 앱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디디추싱은 6월 말 44억 달러(약 5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당시 중국 당국이 상장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디디추싱은 상장을 강행했고 이후 당국의 제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디디추싱은 7개 부처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신규 사용자 가입 제한과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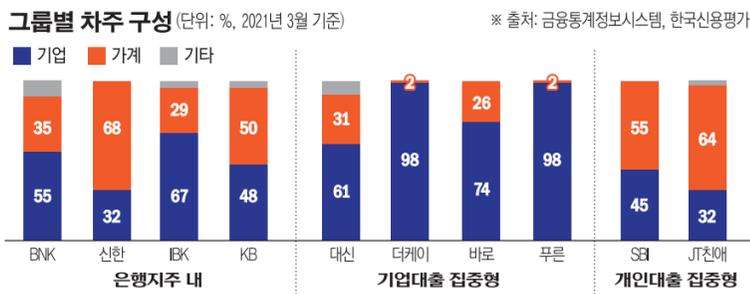
스토어 진입 불허라는 철퇴를 맞았다. 그 결과 상장 후 2개월여 만에 회사 주가는 36% 급락했다.

다만 디디추싱이 국영기업 산하에 머무는 것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전날 디디추싱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 오른 9.02달러에 마감했다. 장 초반 7.5% 급등하기도 했다. 차라리 국영기업 산하에 들어간다면 당국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디디추싱 측은 이날 국영기업과 베이징시의 투자 검토 사실을 부인했지만, 실제 투자 제안이 온다면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정부, 저축銀 ‘가계대출’ 제동... 증가세 한풀 꺾일 듯

기업대출보다 수익성 높아 적극적
증금리 대출 확대 등 영향 급증세
금융당국 ‘총량 제한’ 고강도 관리
추가규제 전망 속 전략 수정 불가피



은 2017년 말 27%에서 2021년 3월 말 35%로 불과 3년 만에 약 8%포인트(p)가 늘어났다. 업체별로 보면 업권 평균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업체는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SBI저축은행, JT신에저축은행이다.

신한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금융그룹 내 은행의 높은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신용자(4-6등급)에 대한 신용대출과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SBI저축은행과 JT신에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증금리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의 비중은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탓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확대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며 금융당국

은 전 업권에 걸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21%로 맞춰야 한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옮겨오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역시 가능한 상황이며 당분간 가계대출 상승곡선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저축은행의 8월 가계대출 추이가 전달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의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 역시 은행 수준의 규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면담 계획이 잡혀있는 업체는 없지만 가파른 대출 증가세를 보이는 저축은행은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금리 인상에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공시·예정이율 인상... 실제 반영까지 시간 걸릴 듯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생보사의 공시이율과 예정이율도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보험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높아져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 다만 실제 반영까지는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일부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소폭 올렸다. 연금보험에서는 동양생명 0.04%p를 올린 2.30%로 정했고, 교보생명도 0.01%p 상승한 2.29%로 결정했다. 저축보험은 하나생명 0.02%p 올린 2.52%, 교보생명이 0.01%p 올린 2.26%로 정했다.

농협생명만 유일하게 0.01%p 내린 2.20%로 결정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올랐으나 채권비중이 높은 회사 경우 시중 채권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시중금리는 오히려 하락 추세여서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상승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 공시이율이란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이 투자한 금액에 일정 이율을 붙여 이자로 지급되는 보험 예정금리를 말한다.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소비자가 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은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률을 말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채권의 이자수의 증가로 인해 보험사의 투자 수익이 개선된다. 예상 이익률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덜 받아도 된다.

한국은행은 전달 기준금리를 연 0.5%에

9월 공시이율 현황

연금보험	
동양생명	2.30%(0.04%p)
교보생명	2.29%(0.01%p)
저축보험	
하나생명	2.52%(0.02%p)
교보생명	2.26%(0.01%p)

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르면 10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금리가 공시이율에 반영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차는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용 시점의 직전 3개월가량의 가중 이동평균을 적용해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만큼 기준금리에 변동이 생긴다고 해도 즉각적인 반영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리 인상이 보험사들의 건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보험부채 평가 방식은 원가방식이므로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 감소 없이 자본만 감소해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2023년 IFRS17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힘쓰고 있는 보험사들의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이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금리 상승으로 매도가능채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RBC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서지연 기자 sjy@

재발 방지는 뒷전, 제 식구 감싸기 급급

금감원 잇단 자료유출 사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유석현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렴·윤리 실천 및 복무 기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였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복무 기강 재점검 사안으로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 고발 제도 활성화 △외부인(퇴직자 포함) 접촉 관련 위규 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 정비 △문서보안절차 강화, 재택근무 복무지침 정비 등 복무기강 재점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문서보안절차 강화는 라임 자료 유출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자료 유출 행위가 재발했고 경징계로 봉합하려는 행태도 여전했다. 금감원의 위신이 다시 한번 바닥을 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비위 행위에 따라 차이가

금감원 직원의 정보 유출 파문

시기	위반 행위	징계사유	징계
2020년 10월	라임자산운용 관련 자료 외부 유출	비밀엄수 위반	경징계(감봉)
2021년 8월	대형 로펌 이직 앞두고 자료유출 혐의	비밀엄수 위반	경징계(정직에서 감봉)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징계기준

비위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면직	면직~정직	정직~감봉	감봉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면직	면직~정직	정직~감봉	감봉	면직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직무태만	면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면직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부정청탁	면직	면직~정직	정직~감봉	견책	면직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기타 감독원의 정관 또는 내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	면직~감봉	정직~견책	감봉~견책	견책	면직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작년 라임 관련 자료 유출 파문

“복무 기강 재점검” 약속했지만

이직 앞둔 직원 또 정보 빼돌려

“개인일탈 넘어 금감원 신뢰 하락

고강도 재발방지 방안 마련해야”

있지만 비위 정도의 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인사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 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

한 금감원은 조직의 잘못을 은폐하고 감독 당국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금융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금융사 징계 전에 스스로 먼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원 직원의 개인 일탈을 넘어 감독 당국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검사의 질 저하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이 내규로 업계와 유착고리를 끊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연 기자 sjy@

에 있던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확인했으나 내려받은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위반 행위를 경징계로 끝내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운로드 흔적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해명에 불과하다는 눈길을 보인다. 지난해 라임사태의 핵심인 라임자산운용

의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담당 직원을 경징계해 사태를 일단락한 것과 마찬가지로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내부에서도 촉망받는 직원이었다”며 “내부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 감경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해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 ‘줄인상’

3개월새 0.5%p 올러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최근 주요 은행의 대출금리는 3개월 만에 0.5%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의 지난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연 2.80~4.30% 수준이다. 약 3개월 전인 5월 말(2.35~3.88%)과 비교해 약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신규 코픽스가 아닌 신(新)잔액 코픽스를 따르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2.284~4.01%에서 2.673~4.38%로 상승했다. 최저·최고금리가 각각 0.389%포인트, 0.37%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 3일 기준 3.00~4.05%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5월 말(2.564~3.62%)보다 상·하단이 모두 0.43%포인트 정도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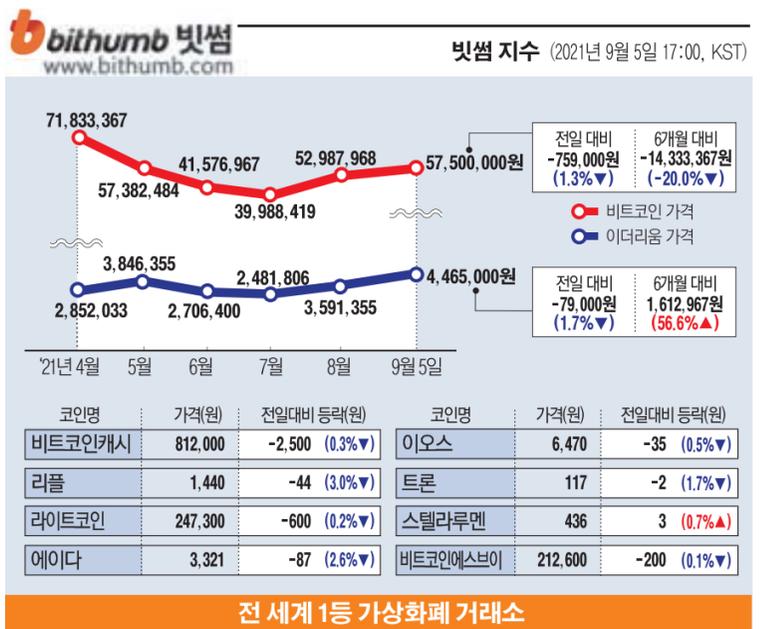
곽진산 기자 jinsan@

중요정보 줄줄 새는 금감원

▶1면서 계속

금감원 “자료 다운받지 않았다”

인사국 관계자는 “암호화된 내부 파일을 외부로 내보낼 때 망간 전송 자료 흔적이 남는데 그것이 발견된 것”이라며 “메일



K-수소위, 8일 출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전걸음

킨텍스에서 '수소모빌리티+쇼' 개최
정의선·최태원 등 총수 총출동
포스코·한화 등 10년간 43兆 투자



지난 6월 정의선(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발걸음이 속도가 붙었다. '2050 탄소중립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12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투입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출범한다.

5일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서 현대차그룹과 SK, 포스코가 공동 의장을 맡는 수소기업협의체가 'H2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수소 산업을 다루는 기구는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기업으로만 구성된 민간 협의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H2 비즈니스 서밋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재계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할 예정이

어서 관심을 끈다. 이들은 총회를 마치고 행사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월 정 회장과 최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수소 기업협의체 설립에 대해 논의한 지 석 달 만이다. 초반 논의에 참여한 4개 그룹 외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회원사가 20여 곳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은 수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협의체 구성을 추진했다.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만큼, 힘을 합쳐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수소 산업을 공략하려는 기업 차원의 개별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대차그룹은 1998년부터 23년 동안 수소 전동화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양산했고, 글로벌 수소 전기

차 점유율에서도 과반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간 수소전기차 50만 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70만 기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를 위해 수소차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충전소 설치 등에 11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모빌리티+쇼 참여에 앞서 다가오는 7일엔 수소 관련 글로벌 행사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를 개최해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 사업 전략을 제시한다.

SK그룹은 지난해 말 수소 사업 전담조직인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2025년까지 수소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5년간 18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 기간에 SK그룹은 액화수소 연 3만 톤과 불루수소 연 25만 톤 등 수소 공급 능력을 연 28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 건설 중인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도 내년 7월부터 가동된다.

포스코그룹은 수소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2050년까지 그린 수소생산 500만 톤, 수소 매출 3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효율을 높인 수전해 기술, 수소 운반을 위한 탱크 제작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계열사 한화솔루션도 최근 1조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수소 저장과 유통에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5개 그룹사가 2030년까지 수소 경제에 쏟아부을 투자금액은 43조 원에 달한다.

한편 수소모빌리티+쇼엔 주빈국 스웨덴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전 세계 12개국, 154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수소모빌리티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에너지 분야의 제품 및 기술을 선보인다.

1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와 글로벌 자문사 맥킨지가 최근 발간한 '수소 인사이트 보고서(Hydrogen Insights report)'에 따르면, 10년 뒤 전 세계 수소 사업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약 57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갤 워치4·갤 버즈2' 이마트24에서 판다

삼성, 액세서리 등 제품 29종 확대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 '갤럭시 버즈2' 등 최신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를 이마트24에서 판매한다. 사진은 이마트24 삼성동점에 설치된 진열대 모습.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4'와 '갤럭시 버즈2',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 다양한 모바일 신제품을 이마트 브랜드의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USB 케이블, 충전 어댑터, 유선 이어폰 등 정품 액세서리 6종을 '이마트24'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꾸준한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판매 제품을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하며, 판매 품목을 총 29종으로 늘리면서 고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이마트24'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은 최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와 '갤럭시 버즈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와 '갤럭시 Z 플립3 케이스'와 'S펜 프로' 등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 총 29종이다. '이마트24'와 협업한 모바일 액세서리도 만나볼 수 있다.

여의도, 종로, 강남 등 수도권 인구가 밀집도가 높고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마트24' 리저브 매장과 직영 매장 10개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며, 연말까지 전국 200개 이상으로 판매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마트24' 판매 품목 확대를 기념해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구매조건에 따라 할인, 액세서리 제공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마트24'와 같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와 액세서리를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품목을 전면 확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올해 수입차 '1만대 클럽' 새 주인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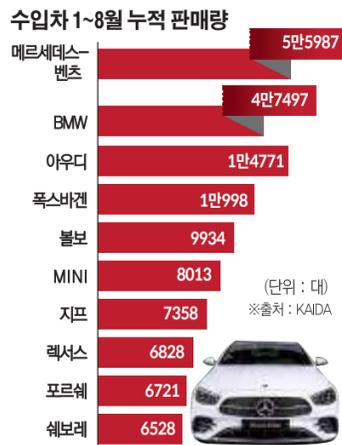
볼보·미니·지프·렉서스 이름 올릴 듯... 포르쉐도 가능성 커

올해 수입차 '1만대 클럽'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프와 렉서스가 재진입에 성공하고, 포르쉐는 사상 처음으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판매량 1만 대를 넘긴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쉐보레 △미니 등 7곳이다. 쉐보레가 처음으로 1만 대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렉서스와 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는 불매운동 여파로 명단에서 빠졌다.

올해는 전체 수입차 시장이 확대된 만큼, 1만 대 클럽에 가입하는 브랜드도 최대 9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판매량 1만 대 고지를 넘어선 브랜드도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는 5만5987대를, BMW는 4만7497대를 팔아 일찍이 1만 대 클럽에 입성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각각 1만4771대, 1만998대를 판매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볼보와 미니도 가세한다. 볼보와 미니는 지난달까지 각각 9934대, 8013대를 판매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밖에



지프와 렉서스는 1만대 클럽 재진입에 성공하고, 포르쉐는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지프는 SUV 열풍에 힘입어 올해 3월에만 1557대를 팔며 역대 월 판매 기준 최대실적을 거뒀다.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7358대로, 이 추세를 유지하면 연말까지 1만1000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렉서스는 올해 들어 6828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 연말

까지 수요가 유지되면 렉서스도 2019년에 이어 올해 다시 1만 대 고지를 넘을 수 있을 전망이다.

포르쉐 역시 처음으로 1만대 판매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8월까지 6721대가 팔리며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7779대를 판매해 세계 시장 5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수입차 업계의 호실적은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까지 KAIDA 회원사 기준 전체 수입차 누적 판매량은 19만4262대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로, 업계에서는 올해 수입차 시장이 연간 30만대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급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입차 제조사의 공급망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라며 "업계가 다양한 친환경차 제품군까지 추가하고 있어 올해 수입차 연간 판매량은 30만대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두산인프라, 이집트서 36톤급 굴착기 28대 수주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 사업을 본격화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5일 이집트 국방부와 36톤 대형 굴착기 총 28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장비는 이집트 신항정수도와 카이로 간 전철 구축 사업에 투입된다. 이로써 올해만 이집트에서 총 137대 건설장비를 판매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2% 늘어난 규모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초에도 이집트 국방부로부터 총 30대의 건설기계 장비를 수주한 바 있다.

특히 이집트에서 추가 계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가량 늘어난 250여 대를 판매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 중이다. 이런 예상치는 올해 이집트 전체 건설기계 장비 시장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집트에서의 이 같은 성장세는 기술, 품질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현지 밀착 영업의 결과다. 이번 이집트 국방부의 경쟁입찰에서도 엔진 출력과 연비효율이 우수한 36톤급 새 기종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과 비교해 엔진 출력은 12% 이상 높였고 최신 유압 시스템과 연비 저감기술(VBO)을 적용, 작동성과 연비효율까지 향상한 제품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현대글로벌비스, 가스 해상운송 사업 출사표

'트라피구라'와 10년 장기 계약
8.6만㎡급 VLGC선 2척 투입

현대글로벌비스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VLGC·Very Large Gas Carrier)을 투입하며 가스 해상운송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세계 3대 원자재 거래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와 운송 계약을 맺고 오는 2024년부터 암모니아 및 액화석유가스(LPG) 해상운송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트라피구라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

적 기업으로 석유, 가스, 광물, 비철금속 등을 취급하는 원자재 거래 회사다. 2020년 기준 약 173조 원의 매출과 3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글로벌 업계 3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가스 운송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현대글로벌비스는 최대 10년간 글로벌 수요처에 암모니아 및 LPG를 운송하며 '수소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사업을 위해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VLGC 2척을 건조하고 글로벌 해상운송시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조 선박은 적재 규모 8만6000㎡의

초대형으로 글로벌 가스 운반선 가운데 최대 수위에 달할 전망이다.

통상 LPG 위주로 운송하는 기존 가스선과 달리 현대글로벌비스 VLGC는 화물창을 특수 재질로 제작하여 암모니아까지 운송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를 선적할 수 있는 VLGC는 20여 척 내외(VLGC 전체 선대의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선박이 인도되는 오는 2024년부터 최대 10년간 글로벌 수요처에 암모니아와 LPG 등 가스를 안정적으로 장기 운송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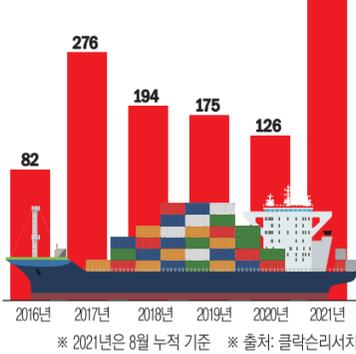
현대글로벌비스는 특히 현 기술 수준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수소 저장·운송 매개체로 꼽히는 암모니아의 해상운송에 주목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컨테이너선 발주 작년보다 13배 늘었다

올들어 1507만 CGT 사상 최대
해상운임 급등·운송량 증가 영향
공급과잉 이후 수익성 하락 우려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 추이
(단위: 척, 표준톤수 기준)



해상운임 급등하고, 운송량이 늘면서 올해 컨테이너선 발주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스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 세계 컨테이너선은 1507만1478 CGT(표준선 환산톤수·386척)가 발주됐다.

이는 클락스리서치가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선업 초호황기였던 2007년 발주된 1321만7003 CGT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발주량이 역대 최저수준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116만3164 CGT, 약 31척)과 비교하면 13배 가까이 급증했다.

컨테이너선 발주 열풍에 힘입어 국내 '빅3' 조선업체인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현재까지 각각 57척, 38척, 16척을 수주했다.

조선업계는 해상운임 급등과 운송량이

증가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3일 4502.65를 기록했다. SCFI가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8월 초 4000선을 돌파한 이후 한 달 여만에 4500선도 돌파한 것이다. SCFI는 올해 5월 14일 이후 1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미국 항만 적체로

해상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3분기 성수기도 겹치면서 운임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 항구 외곽에서는 물동량 증가로 항구 혼잡이 심해지면서 현재 선박 47척이 대기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중고 컨테이너선 수요도 늘고 있다. 클락스리서치의 중고선 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말 사이 160% 상승하며 10년래 최고치에 근접 중이다.

선사들은 해운 호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컨테이너선 발주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이 300척 이상 발주됐다.

일각에서는 초호황에 진입한 해운업황이 꺾이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공급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해운업계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2023년에는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현재의 2배에 이르는 200만TEU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모비스가 증장기 글로벌 영업전략을 공언했다. 스케이트보드형 모듈을 개발하고 EV부품 육성에 나서는 한편, 핵심고객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연구개발 현지화도 추진한다. 사진은 올해 초 공개한 콘셉트카 M.비전.X의 모습.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전기차용 모듈' 시장 개척

각종 전동화부품 일체화한
대단위 플랫폼형 제품 통해
'미래형 전기차' 개발 도와

시프레이에 조향·제동 등 주요 핵심부품과 각종 전동화부품을 일체화한 대단위 플랫폼형 제품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다.

완성차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형 전기차 PBV(목적기반차량)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대모비스가 현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전동화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부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구동 시스템, 파워시스템, 배터리스스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핵심부품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융합한 '전기차용 모듈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고, 현지 고객사를 전담하는 영업활동 조직을 강화해 공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1' 미디어발표회에서 '모빌리티 무브(Mobility Move)'를 주제로 이 같은 증장기 글로벌 영업 전략을 공개한다.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등 현대모비스의 주력분야에 전동화 부품 포트폴리오를 융합한 EV모빌리티 분야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IAA에서는 현대모비스 글로벌 OE 영업부문장인 악셀 마슈카(Axel Maschka)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이러한 글로벌 영업전략을 공개한다. 이날 발표에서 현대모비스는 주행에서 충전까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적용되는 회사의 다양한 신기술도 함께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슈카 부사장은 "현대모비스는 창의력과 핵심 경쟁력을 결합한 제품 포트폴리오로 전동화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IAA를 통해 전동화와 30여 개 자율주행 신기술을 선보이고, 12일까지 현장에서 글로벌 고객사와 직접 접촉하며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스케이트보드형 모듈로 확장=자동차 3대 핵심 모듈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현대모비스는 스케이트보드형 모듈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해 증장기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스케이트보드형 모듈은 차량의 뼈대를 이루는 새시프레임에 e파워트레인 시스템으로 불리는 전동화 핵심부품이 합쳐진 형태로, 완성차 제조사 요구에 맞춰 유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에서 큰 공간을 차지하는 새

실제로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공급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얹은 친환경 차량은 50만대를 웃돈다. 2009년 전동화 핵심부품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현대모비스는 200만대에 이르는 친환경 차량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공급해 왔다.

◇맞춤형 수주 위한 전담 조직 운영=현대모비스는 유럽을 시작으로 북미, 중국, 인도 등 세계 4대 거점에 핵심 고객 전담조직(KAM)도 운영한다. 현지 맞춤형 수주 활동을 위한 것으로 향후 일본과 기타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제품군 중심의 기존 수주 활동에서 나아가 핵심 고객군에 특화된 통합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각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빠르게 대응하고 설계와 양산, 품질관리에 이르는 제품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 접점에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현지의 개별 고객사를 전담해 수주 활동을 총괄하는 임원급 현지 전문가를 채용했다.

현대모비스는 15~2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며, 이들은 앞으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한 고객 대응을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연구개발 현지화도 병행한다. 북미, 독일, 중국 등 해외연구소에 현지 고객 맞춤형 대응을 위한 전담 연구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KAM과 마찬가지로 각 고객사에 특화된 설계, 평가 등 현지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비타민B는 역시 비맥스

자세한 설명은 약사님이 하신다.

강력한 피로 회복엔
비맥스 메타정



비스벵디아민 함유,
비타민 B군 100mg, B12 500µg 함유

허가 및 제조권자: (유)한홍제약
영 한홍제약

광고심의필: 2021-1568-0040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정보보호 솔루션 ‘캐치시큐’ 中企 특화”

인터뷰

조아영 오네피플 대표

동서서·결과물 호스팅 자동화
소규모 회사 개발자 없이 운영
데이터 분석 통해 상품 다각화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응이 어렵다.

조대표는 오랜 기간 개인정보보호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전문가로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그는 창업 전 대학교 학부에서 정보보호를 전공하고 컨설팅회사에서 5년간 정보보호, 개인 정보보호 컨설팅으로 일했다. ‘창업’과 접점은 KAIST 정보경영 석사로 진학 과정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조아영 대표는 “학업과 컨설팅을 병행하

며 주로 정보보호나 보안 체계가 잘 갖춰진 대기업이나 금융권 위주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그 와중에 한 유명 스타트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컨설팅에 투입이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접하던 고객사 대비 규모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했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정보보호와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직면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대기업 위주의 정보보호가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때 알았다”며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깨달음은 오네피플 창업으로 연결됐다. 조 대표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공급하기 위해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캐치시큐는 개인정보처리현황에 맞춤형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서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결과물을 호스팅(Hosting)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영역의 생산성을 높

였다. 캐치시큐 사용자는 개발자의 도움 없이 개인정보 변경 내용이 자동 반영돼 규제의 정확한 준수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정보 주체(고객)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부분 기업이 이를 수작업으로 진행한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스템화돼 있지 않아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캐치시큐는 동의 이력을 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주체가 직접 조회 및 철회할 수 있다”며 “정보 주체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하며,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 고객사의 업무 효율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에 따르면 캐치시큐가 예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최대 과태료는 약 5억 원에 달한다. 현재 고객사가 300개를 넘어섰으며 지속해서 상대되고 있다.

조 대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데이터 분석·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엔진 고도화 및 API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 및 상품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 kjm@

코웨이, 친환경 사업 박차 ‘미추홀맑은물’ 연내 완공

코웨이가 연결 자회사인 코웨이엔텍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가치를 키운다. 코웨이가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은 ‘미추홀맑은물’ 프로젝트다.

5일 업계와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엔텍은 연말 완공을 목표로 미추홀맑은물 사업(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웨이엔텍의 100% 자회사인 미추홀맑은물은 올해 5월 현대제철 및 SK인천석유화학공장 공업용수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건설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설비의 완공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추홀맑은물 사업 사례는 코웨이뿐만 아니라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에서도 간접적으로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하수처리수 재사용 이슈가 ESG 경영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코웨이엔텍이 하수·정수처리 및 재이용 분야의 플랜트 수주 기업에서 기업·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직접 사업 운용에 뛰어든다는 점이다. 포천맑은물, 미추홀맑은물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처리 및 재이용 사업의 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앞으로 코웨이엔텍이 코웨이의 주요한 계열사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코웨이 관계자는 “미추홀에 있는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은 그동안 수도물로 공업용수 공급을 받아 왔다”며 “미추홀맑은물이 하수처리수를 공급받아 수도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업용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상수사용대비 원가절감 및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는 폐수·하수처리 방류수를 다양한 산업군에 적합한 용수로 재처리하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고종민 기자 kjm@

LG U+, 취약계층 통신비 1년간 지원

우분·인스코비 등 협력

LG유플러스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공익재단·인스코비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간 통신비를 지원하는 ‘통신나눔’ 활동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네 기관은 인스코비가 출시할 요금제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가입자 1000명에 대해 통신요금을 1년간 공동 지원한다.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만원의행복 요금제의 경우 VAT 포함 월 기본료 1만3200원으로 책정됐다. LTE 데이터는 월 4GB(소진 후 400Kbps)와 음성통화·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상품이다. 모집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자는 1년간 통신비를 지원받게 되며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따라서 네 개 기관은 12개월 기준 총 1억5840만 원을 공동 지원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객도 통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LG유플러스 모델이 5일 ‘통신나눔’ 활동 참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www.hauri.co.kr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주) 하우리 | 서울시 동작구 만안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국민지원금으로 장 보세요” 분주한 편의점

이마트24 한시적 박스과일 판매 GS25 추석 선물세트 구매 유도 홈플러스 임대매장 결제 가능해

편의점 업계가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특수를 잡기 위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이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반면 편의점에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특수가 기대되고 있어서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이마트24다. 이마트24는 국민지원금 지급에 맞춰 고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24는 9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상주 명품사인머스켓' 1송이·1박스(1만 5000원·6만 원), '송원 홍로사과' 1박스(15입 내외, 2만6500원), '농협 머스크메론' 1개·1박스(1만5000원·6만 원), '농협 프리미엄 제주 왕애플망고' 1박스(23만 5000원) 등 다양한 고당도 박스 과일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마트24는 고객이 보다 알차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 상품을 늘리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실제 이마트24는 9월 한 달간 지난해보다 200여종 늘

린 1940여 종의 상품에 대해 1+1, 2+1 등 덤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간편식품, 일상용품 등 생필품 행사 상품을 30% 이상 확대했다. 유제품, 아이스크림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반면,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먹거리와 물휴지, 물티슈, 세제, 샴푸, 치약·칫솔과 같은 생필품 1+1을 늘리는 등 할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홈플러스 증가에 따라 맥주, 와인, 위스키 등 주류 행사 상품도 지난해 220여 종에서 290여 종으로 30% 이상 늘렸다. 이마트24가 최근 선보여 인기를 얻고 있는 수제 맥주 SSG랜더스 라거, 슈퍼스타즈 페일 에일, 최신맥주 골드에일 등 3종은 7일까지 4캔 9000원에 판매한다. 이후 말일까지 4캔 1만 원에 판매한다.

GS25는 고단가 상품 판매를 염두에 두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육 같은 축산물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양주 등 평소 편의점에서 구매빈도가 낮은 고단가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던 까닭이다.

GS25는 추석을 앞둔 만큼 국민지원금을 선물세트 구매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먼저 9월 말까지 5만9900~8만9900원대 육우 선물세트를 2+1로 판매한다. 애플 에어팟 프로, 삼성전자 QLED TV 등 가전 상품은 지난해 60종에서 올해는

90여 종으로 확대한다.

CU는 대용량 생필품을 모바일로 주문 받아 배송하는 식으로 대형마트의 장보기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대형마트도 국민지원금 수요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사 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에서 국민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이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국 138개 점포에 입점한 5800여 개 임대매장 중 약 15%에 해당하는 880여 개 매장이 정부가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베스킨라빈스, 올리브영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일부 매장 제외)과 미용실, 안경점, 약국 등이 모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다.

홈플러스는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에는 별도의 안내 고지물을 비치해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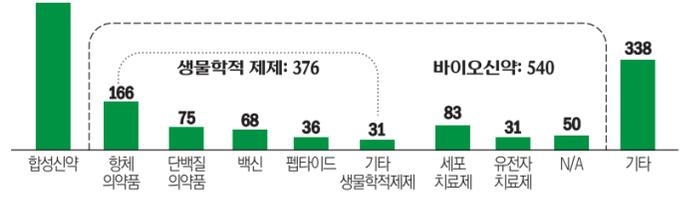
대형마트는 추석 연휴 무렵에 먹거리 중심의 가격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사용처에서 제외돼 매출에 타격을 받아 '초저가 할인 행사'로 대응한 바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신약유형별 파이프라인 (단위: 개)

*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조사기업: 299개 기업/상장기업수: 116개사/파이프라인수: 193개사, 1477개/상장기업의 R&D 투자 비중: 10.7%



파이프라인 1500개 'K-혁신신약' 눈앞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신약 파이프라인 규모가 3년 만에 157.8% 증가하면서 혁신신약 개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과 라이선스 이전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93개사에서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은 1477개로, 100개사 573개였던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2.5배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29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합성신약 599개(40.6%) △바이오신약 540개(36.6%) △기타 338개(22.9%) 순이다. 임상단계별로는 △선도·후보물

질 또는 비임상 단계에 있던 물질들이 개발단계, 즉 임상단계로 전환되고 임상 1상이나 2상 물질들이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하면서 개발 성공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선진국형 연구개발 모델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또 1500개에 달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은 기업체들의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개발에서 비롯됐다고 내다봤다.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6년 1조7982억 원에서 2020년 2조1592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4.7%의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2016년 8.9%에서 2020년 10.7%로

3년 만에 157.8% 증가
항암제 개발 가장 활발

“선진국형 모델로 변화
3상 완주 정부 지원 필요”

질 403건(27.3%) △비임상 397건(26.9%) △임상 1상 266건(18.0%) △임상 2상 169건(11.4%) △임상 3상 116건(7.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1·2·3상 등 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모두 2018년 조사보다 2배 이상 확대됐으며 이중 임상 3상의 증가세(274.2%)가 가장 컸다.

질환별로는 항암제 개발이 317건(21.5%)으로 가장 활발했다. 이어 △대사질환 173건(11.7%) △신경계통 146개(9.9%) △감염성 질환 112개(7.6%) △소화계통 79개(5.3%)로 나타났다. 개발이 가장 활발한 항암제 중 비교적 시장 진입 가능성이 큰 임상 2·3상 단계 항암제는 각각 25개, 10개 등 모두 35개였다.

이번 조사와 2018년 조사의 동일 모집단인 68개 기업의 경우 파이프라인이 442개에서 710개로 60.6% 증가했다. 또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1·2·3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수 모두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성과를 보였다. 이는 2018년 당시 후보

상승했다.

업계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충하는 동시에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영세한 규모를 극복해야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신약개발에 1조 원 이상의 전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임상 3상 등 후기 임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성공 가능성이 큰 파이프라인에 자원을 쏟아붓는 '선택과 집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희목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한두 기업이나 품목의 성공을 뛰어넘어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들로 이뤄진 산업군 전반의 인프라와 R&D 역량이 강화될 때 글로벌 제약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선싱 이전 등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술이전에서 나아가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완주해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태우 수습기자 burning@



“편의점서 계좌 만든다”
CU·하나銀 금융특화점

편의점과 은행이 결합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하나은행과 미래형 혁신채널 구축 및 디지털 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디지털 혁신 라이프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서울 송파구에 CUX하나은행 금융 특화 편의점을 오픈한다. CU가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상점사 표시 편의점(PLCS, Private Label Convenience Store)으로 기존 습입식 방식을 넘어 공간 공유와 함께 제휴 브랜드의 서비스 및 콘텐츠를 상호 완벽하게 결합하는 컬래버 점포 모델이다. 사진제공 BGF리테일

“수지도 빠진 탈모샴푸” MZ 탈모족 잡는다

탈모환자 44%가 2030세대 TS 지드래곤·애경 수지 기용

탈모 시장 소비자가 젊어지고 있다. 영탈모족을 공략하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탈모 관련 업계는 아이돌 빅스타를 모델로 내세우고 20·30세대를 겨냥한 뷰티 브랜드에서 제품을 쏟아내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탈모샴푸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22만4500명이었던 국내 탈모 환자는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44%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영 탈모족이 시장에 가세하면서 탈모샴푸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두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라보에이치'가 출시한 지 1년 반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넘어섰다. 라보에이치는 지난해 3월 출시된 탈모케어 샴푸로, 올리브영에서 20·30세대 사이에 인기있는 샴푸로 이름을 올렸다. 유튜브 채널 '방가네'와 협업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의 닥터그루트 샴푸 역시

2017년 판매 수량 대비 지난해 5배 이상 판매되며 누적 판매 수량 1100만 개를 돌파했다. 1분에 약 5.5개꼴로 팔린 셈이다. 특히 닥터그루트는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영 탈모족 증가에 힘입어 전체 매출 가운데 온라인 매출이 60%가량 차지했다.

TS트릴리온은 지드래곤을 모델로 내세웠다. 손흥민 축구선수, 김연아에 이어 지드래곤을 모델로 발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TS트릴리온이 지난달 공개한 '세계가 사랑하는 뮤즈 GD, 지디가 선택한 TS샴푸' 광고 영상은 조회수 유튜브 200만회를 넘어섰다.

애경산업은 탈모샴푸 브랜드 '동의홍삼'의 영지 홍삼 모델로 수지를 기용했다. <사진> 영지 홍삼은 영지 버섯 추출물과 홍삼 에센스를 함유해 두피 영양 공급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를 완료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다.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 '홍삼 추출물'을 함유해 두피의 유분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 특히 농협홍삼인에서 엄선한 국내산 4년근 홍삼농축액을 담은 '홍삼 레드 에센스'를 함유했다.

MZ세대를 겨냥한 뷰티 브랜드에서도 탈모샴푸 브랜드 론칭도 한창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MZ세대 겨냥 뷰티 브랜드 로이비(LOiViE)는 최근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 '데일리 리프레이시안티-헤어 로스' 2종을 출시하며 탈모샴푸 시장에 진출했다.

MZ세대 겨냥 뷰티 브랜드 투쿨포스쿨도 2가지 색을 블렌딩해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연출하는 '아트클래스 바이로딩 헤어 웨이딩'을 출시했다. '바이로딩 헤어 웨이딩'은 2가지 음영 컬러로 구성된 헤어 컬러에 맞게 믹스해 사용하는 헤어용 웨딩 제품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최대 +50yd 더나가는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BIG BANG

문의) 1544-8070

손이 필요하신가요? 기다림 없는 신속한 전달, 자율주행, 똑똑한 음성인식과 따뜻한 발화 등 KT의 앞선 AI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 서비스 만나실 수 있습니다



[AI 서빙로봇 servi]

손이 필요한 곳곳에서 봇당백의 능력을 발휘할 DIGICO KT의 핵심인재. 저는 AI 로봇입니다.

호텔, 카페, 레스토랑부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댁까지 일손이 되고 효자손이 되겠습니다.

KT AI 로봇

기다림 없는 신속한 전달, 자율주행, 똑똑한 음성인식과 따뜻한 발화 등 KT의 앞선 AI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 서비스



KT AI 로봇을 무료로 만날 수 있는 기회(1개월)

24,36개월 임대형 가입고객 한정 1개월 이용료 무료 & 설치비 50만원 면제 / 무약정 고객 월 20만원 이용료 할인 / 9월 30일 가입 & 10월 15일 설치 완료 고객 한정



[호텔로봇]



[서빙로봇 servi]



[서빙로봇 *9월 출시 예정]



[케어로봇]

IPO 시장 '역대급 활황'... 연간 공모액 20兆 찍나

크래프톤·카뱅 등 73곳 상장 러시에 16兆 조달 '신기록'
내달 '대어급' 카카오페이·현대중 대기... 25兆 돌파 전망도

올해 들어 증시에 상장한 업체들의 기업 공개(IPO) 공모금액이 16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IPO 공모액은 총 16조113억 원(73개 사)으로 집계됐다.

95개 사가 상장한 지난해 공모액(5조 9355억 원)의 2.7배 수준이다. 역대 최대였던 2010년(10조1453억 원) 규모의 1.6배에 달한다. 연간 공모액이 10조 원을 넘는 것도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공모금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은 올해 들어 대어급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한 덕분이다.

지난달 10일 상장한 크래프톤이 IPO로 4조3098억 원을 조달하며 역대 2위 공모액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는 2010년 상장한 삼성생명 4조8881억 원이다.

이어 카카오뱅크(2조5526억 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2조2460억 원), SK바이오사이언스(1조4918억 원)가 역대급

IPO 시장을 이끌었다.

특히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4개 사의 공모액만 10조6001억 원에 달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13개사가 13조6902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60개사가 2조3211억 원을 IPO로 조달했다.

유가증권에서 롯데렌탈(8509억 원), 에스디바이오센서(7764억 원), 피비파마(4909억 원)가 수천억 원대 공모액을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도 HK이노엔(5969억 원)과 네오이문텍(1125억 원)이 1000억 원 이상을 모았다.

가을 이후에도 대어급 IPO 시장이 예정된 만큼 올 한 해 공모액이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10월 상장이 예정된 카카오페이가 1조~1조5000억 원, 현대중공업이 1조 원가량을 IPO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상장이 예상됐던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의 쉐보레 볼트 전기차 리콜 사태 등으로 연내 IPO

신규 상장사 IPO 공모액 추이
(단위: 조 원) ※유가증권·코스닥 합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액을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시장 관심이 높은 신규 상장 예정 기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총공모 금액은 25조~30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풍부한 유동성 환경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도 IT·바이오 기업의 신규 상장이 집중됐던 2017년(공모금액 3조5000억 원)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여전히 IT·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2차전자·가상현실 등 신성장 산업 내 기업들의 등장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개인 '사자'에 코스닥 서머 랠리 상승률 3개월 연속 코스피 추월

개인 3조1447억 '순매수' 시총 상위 종목 몸집 확대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3개월 연속 코스피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았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높았던 이후로 가장 긴 기간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0.69%로 0.09% 하락에 그친 코스피 상승률을 앞섰다. 7월은 0.11% 상승으로 2.86% 내렸던 코스피보다 수익률은 높았음 6월에는 4.9% 올라 코스피(2.89%)를 능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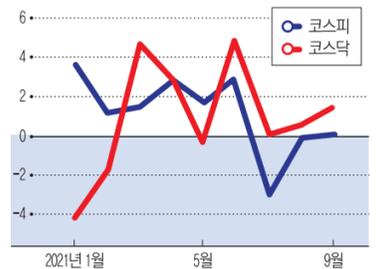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7월 27일~8월 10일(11거래일 연속) 이후 1년여 만에 나타나는 상승 랠리다.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 코스피 상승률을 앞섰던 6~8월 3개월 간 개인은 3조1447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는 3143억 원이고 기관은 2조342억 원 순매도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몸집이 커지면서 상승률이 높아졌다.

5월 말 기준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18조7539억 원이었다. 2위 셀트리온제약은 5조908억 원,

월간 코스피·코스닥 상승률 (단위: %)



3위 펠어비스는 4조130억 원, 4위 카카오게임즈는 3조9020억 원이었다. 5위 에코프로비엠은 3조8512억 원, 6위 에이치엘비는 3조6488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에코프로비엠(7조 229억 원), 펠어비스(6조2446억 원), 카카오게임즈(6조635억 원), 에이치엘비(5조8873억 원) 등의 시총이 크게 불어났다. 셀트리온헬스케어(19조1758억 원)와 셀트리온제약(6조3192억 원)의 시총도 소폭 증가했다.

1위부터 6위까지 시총 합은 39조2천 597억 원에서 50조7천133억 원으로 30% 가까이(29.17%) 급증했다. 이는 이 기간 지수 상승률(5.76%)을 크게 웃돈다.

정명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3개월 간 약세장에서 가장 반짝했던 테마가 전기·수소차인데, 관련 종목이 코스닥시장에 많이 있다"며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전기차 종목이 시총 2위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코스닥이 무슨 시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입에 쏘린 눈... 투자자 관망에 박스권 머물듯

주간 증시 전망

FOMC 테이퍼링 발표 관건 전문가 채권 비중 확대 권고

9월 둘째 주(6~10일)에는 중국 인플레이션율(9일), 미국 8월 생산자물가(현지시간 10일) 발표가 예정됐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예상밴드로 3100~3230포인트를 제시하며, 박스권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부터 회복이 더딘 점을 고려해 이달 주식보다 채권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5일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조정 이후 1차 반등 목표치인 3200포인트 초반에 도달한 후 재차 방향성을 잃었다"며 "9월 FOMC 이전까지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주식시장은 현 지수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9월 FOMC에 앞서 바텀업 측면에서는 5G 관련 이벤트가 예정돼 애플 향 휴대폰 부품주에 관심을 뒤야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하원의 1조 달러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안에 '광대역 통신 확충' 항목에 650억 달러가 편성돼 있어서다. 이는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리오프닝은 서비스 성장 가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통, 의료, 엔터 등 리오프닝 관련주는 4차 코로나 유행으로 전고점 대비 조정받는 상황이어서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8월 생산자물가 발표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8월 CPI 상승률이 7월과 거의 같은 수치로 나온 점을 고려하면, 8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은 심포지엄에서 "테이퍼링은 곧 시작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멀었다"는 내용을 연설한 바 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

근 미국과 유럽, 중국 물가는 동조화되고 있고 각각 생산자물가는 근원 소비 자물가에까지 깊이 영향을 주고 있다"며 "물가는 연준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자산시장이 꺾인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건강한 물가상승은 시장에 호재로도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연준은 아직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임금상승의 증거는 약하고 예전과 같은 나선형 물가 상승 가능성도 작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은 2016년 이후의 금리 인상 시기보다 원자재가격 상승이 가파르고 완전 고용도 일찍 도래하므로 통화 긴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위험 선호 자산 배분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제재개 순서상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증시가 당분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인아 기자 ljh@

증권사 대출채권 '부실 경고등'

▶1면서 계속

대출금 자산은 2조5000억 원이 줄었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2.7%포인트(P) 증가한 4.2%(6367억 원)였다. 전체 평균(1.4%)을 웃돈다. 채무보증 자산도 9조1000억 원이 줄었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전년 동기 대비 +0.9%P)로 악화했다. 지난해 3월 112억 원에서 3541억 원으로 부실가능액이 급증했다. 매입대출채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1.5%(41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3월 16.8%(1993억 원)보다 14.7%P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4076억 원)로 0.7%P 증가했다. 문제는

PF ABCP가 은행 PB센터나 증권사를 통해 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이 팔렸고, 최근 증권 건설사의 줄도산 공포로 개인이 PF ABCP를 사들이지 않는다면 매입을 약정한 금융회사가 만기 물량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건설이나 대형 사업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해 그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실제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598곳으로, 전년 동기(535건) 대비 63건이 늘었다. 자진폐업이 346건(점유비중 57.9%)으로 가장 많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일까

지 발행된 PF ABCP 규모는 1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PF ABCP 발행 규모(13조 원)를 이미 뛰어넘었다.

저금리 기조 아래 풍부한 유동성 덕에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겪으며 미분양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PF ABCP 발행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 같은 전략 덕에 PF ABCP 발행 규모가 급증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연일 규제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격적으로 PF 사업을 이끌면서 무리하게 성사시킨 사업이 많다는 것은 부동산 불황이 왔을 때 무리할 가능성도 크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2차 전자·신재생에너지 힘주는 SK 하반기에만 2조8000억 '공격 투자'

SK이노, 2차 전자 공장에 1.2兆 에코플랜트 폐기물 사업 2800억

SK그룹이 올 하반기에만 2조8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2차 전자에 집중됐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도 8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흘러갈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가 올 하반기 공시한 '타법인 지분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액은 총 2조 8688억 원 규모다.

투자 공시 건수는 총 12건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2300억 원 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셈이다. 출자액 중 60%가량은 2차 전자 관련 사업이며 27%가 에너지솔루션사업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폐기물사업(7%), 기타(의약품·합성수지·투자사) (6%) 등이다.

금액순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중국SK배터리에 1조2325억 원을 출자하는 것이 가장 크다. 이 회사는 자동차전지 제조회사로 신규 공장 투자 목적이다. 이어 SK가 지난달 18일 자회사인 미국 SK E&S에 에너지솔루션 사업투자를 위해 7357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SKC도 종속사인 SKCFT홀딩스가 국

내 계열사 SK넥실리스에 출자했다가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말레이시아 전지용 동박 제조 회사에 2550억 원을 출자한다.

비상장사인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사업 등에 2800억 원을 투자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린환경기술(폐기물 중간처리분업) 740억 원, 이메디원(의료폐기물 중간처리분업) 600억 원, 도시환경(의료폐기물 중간처리분업) 760억 원 등이다.

SK그룹은 최근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줄줄이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지분 일부를 내다 파는 방식으로 올해만 3조 5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SK는 지난 2월 SK바이오파姆 지분 10.98%를 1조 1162억 원에 매각했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SK루브리컨츠 지분 40%를 1조 1194억 원에 처분했다.

그룹사 내 변동도 활발하다.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을 통해 SK배터리를 신설하고, SK는 SK머티리얼즈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승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SK는 첨단소재, 그린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4대 핵심 분야로 ESG First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 중"이라며 "첨단소재 포트폴리오를 집중시키고 글로벌 조달 능력을 활용해 첨단소재 분야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영 기자 pgy@

청약 '불장' 수익형 부동산, 웃돈 없어 팔려니 '잠잠'

가보니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주택규제 피해 라이프 오피스 인기
지난달 청약 경쟁률 최고 '411:1'
'수익성 탐색전' 분양권 시장은 한산

"고덕아이파크 디어반의 분양권 거래가 많지 않다. 다소 관망세로 보인다."

2일 오전 기자가 찾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디어반' 홍보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고덕동 K공인 관계자는 "청약 발표 직후엔 고덕아이파크 디어반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았지만, 요새는 하루에 한 통도 안 올 때가 많다"고 말했다. 고덕아이파크 디어반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는 하이엔드 라이프 오피스다.

라이프 오피스는 사무실이지만 주거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무실과 오피스텔의 장점이 합쳐진 업무공간이다. 고덕아이파크 디어반은 내부에 화장실, 샤워실, 펜트리 등이 포함돼 프라이버시까지 보장되는 공간을 선보인다. 또한 편의시설, 문화공간, 녹지공간, 소풍시설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지하 6층~지상 21층, 연면적 약 30만1337㎡ 규모에 업무시설은 총 591호실이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고덕아이파크 디어반의 청약 경쟁은 치열했다.

지난달 24~25일 양일간 진행된 청약에서 업무시설 591호실 중 590호실 모집에 총 1만857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31.5대 1, 최고 경쟁률은 4군(전용면적 204~



296㎡)에서 무려 410.5대 1에 달했다.

오피스는 주택과 달리 대출 규제가 느슨하고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과 관계없이 전매가 자유롭다. 최근 주택 규제를 피해 이러한 오피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주택에 규제가 심하고 나오는 매물도 적다 보니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라며 "이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청약 시장에서 불이 붙었던 것과 달리 고덕아이파크 디어반의 분양권 전매 시장은 아직 잠잠한 모양새다.

K공인 관계자는 "현재 분양권에 웃돈(피)이 계속 붙고는 있지만 정작 매수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30분 동안 분양권 관련 전화도 없었고, 방문하는 손님도 없었다.

바로 옆 고덕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황은 비슷했다. D공인 관계자는 "지금 피

가 가장 낮은 게 300만 원부터 있지만, 거래가 많은 상황은 아니다"며 "전매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사람들이 투자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직 수익형 부동산이 아파트처럼 확실한 가치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덕동 실로암부동산 양원규 대표는 "고덕동에 분양가가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오피스가 들어오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 이만한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지금도 분양권 매도자는 많은데 매수자는 적다. 애초 청약을 낼 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어 "한강뷰에 지하철 연장 등 호재도 있어 실제 오피스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최적의 입지"라면서도 "실수요가 아닌 피 차익을 통한 수익이나 향후 임대 수익 등 투자가 목적인 사람들은 신중하게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부동산 대세는 뚝뚝한 한 채 9월 '대어급 분양' 쏟아진다

성수기 서울·경기 등 대단지 분양
총 5만1429가구 작년비 58%↑

9월 전국 분양시장에 대어급 단지들이 줄줄이 쏟아질 전망이다. 새 아파트 대부분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모 분양으로 공급되는 데다 뚝뚝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청약통장이 쏟아질 전망이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국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5만1429가구다. 작년 같은 기간(3만2466가구)과 비교해 58% 늘어난 물량이다. 이중 70%에 육박하는 3만5891가구가 수도권에서 풀린다. 작년 물량(1만811가구)의 3배를 넘어선다.

경기도에서는 2만570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임대물량 331가구 분양이 전부였던 서울에서도 50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입주자를 모집해 청약 대기자들이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에선 작년(2만1655가구)보다 다소 줄어든 1만5538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달 수도권 분양시장은 공급물량도 많지만, 대어(大魚)로 이름난 단지들이 대거 포함된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 래미안'(2904가구)을 비롯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가구), 경기 광명시 '베르몬트로 광명'(3344가구), 수원시 권선6구역(2175가구), 안양시 동안구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등의 분양이 줄줄이 이어진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가구수는 593가구(전용면적 84~101㎡)로 많지 않으나 서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초첨제 물량이 포함돼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전용 101㎡형의 일반공급 물량 절반이 초첨제로 나와 가점이 낮은 청약자나 1주택자도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분양가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3.3㎡당 243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 84㎡형이 주변 동일면적 시세(약 12억~13억 원)보다 수억 원 낮고, 분양가가 9억 원 미만 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달 24일 착공 승인을 받은 이문1구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2904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803가구(전용면적 33~99㎡)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2000만~21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선 광명뉴타운과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 모두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다. 3000가구를 넘는 대단지 베르몬트로 광명에선 726가구가 청약시장에 풀린다. 전용 102㎡형 절반은 초첨물량으로 나온다. 평촌 엘프라우드 역시 대단지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700가구 이하다. 지방에서도 대구 중구 동인동 일대 '힐스테이트 동인', 달서구 분리동 일원의 '달서 SK VIEW' 등이 분양 준비에 들어간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뚝뚝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분양물량이 나오는 만큼 고가점자들의 청약통장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며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지별 공급일정과 공급면적 등을 꼼꼼히 살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주의 분양캘린더

9월 둘째 주엔 4100가구 넘는 아파트·오피스텔이 청약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10개 단지 4182가구(일반분양 2109가구)가 청약 시장에 공급된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 한울 에 이치밸리움', 대구 달서구 분리동 '달서 SK 뷰(VIEW)', 충남 천안시 직산읍 '더

샵 천안 레이크마크'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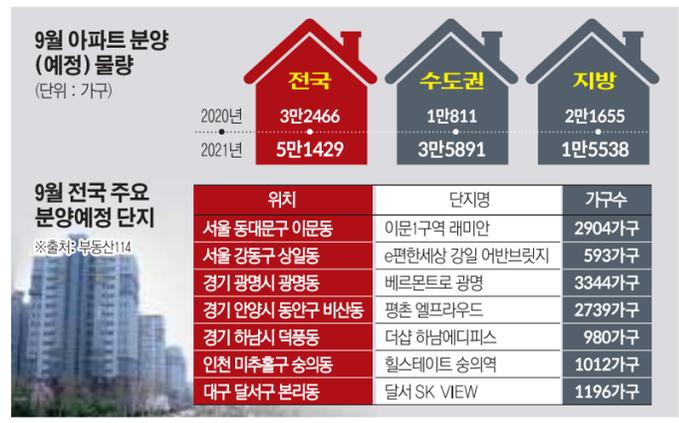
9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수원시 원천동 '한화포레나 수원원천', 광주 동구 산수동 '무등산 한국아베리움 더 힐 2단지', 전남 광양시 황금동 '더샵 광양 베이센트'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정당계약을 받는 단지는 18곳이다. 경남 양산시 덕계동 '트리마제 양산 1~2단

지',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 금호어울림 오션테라스',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등에서 이번 주 정당계약을 시작한다.

7개 단지는 10일 일제히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4단지' 오피스텔,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셀' 등이 이날 견본주택 문을 열고 청약객을 맞는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6 (월)	접수	경기	김포시	봉무동	봉무역파크트루엘	9/8 (수)	발표	경기	수원시	원천동	한화포레나수원원천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리버카운티 2순위				광주	동구	산수동	무등산한국아베리움더힐(2단지)					
	계약	경기	용인시	보정동	롯데캐슬하이브엘(민간임대)		전남	광양시	마동	광양와우중흥S클래스							
			안주시	덕계동	양주회전A18(공공분양) (~9/17)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브라운스톤갤럭시					
			안주시	덕계동	양주회전A21(공공분양) (~9/17)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한울에이치밸리움 2순위 (기타지역)					
			부안	연제구	연산동				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	인천	연수구	옥련동	KTX송도역서해그랑블 2순위 (기타지역)				
			대전	유성구	용계동		힐스테이트도안퍼스트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 2순위				
			광주	서구	마북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상무역 (~9/10)			대구	달서구	분리동	달서SKVIEW 2순위				
			경남	양산시	덕계동		트리마제양산(1단지) (~9/9)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2차 2순위				
			경남	양산시	덕계동		트리마제양산(2단지) (~9/9)			발표	경기	김포시	봉무동	봉무역파크트루엘			
전북	김제시	검산동	검산이지올라프라이 (~9/8)	전남	광양시	황금동	더샵광양베이센트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금호어울림오션테라스 (~9/8)			계약	경기	안성시	석정동	안성아왕B1(공공분양) (~9/14)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한라비발디스마트밸리 (~9/10)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브라운스톤갤럭시								
9/7 (화)	접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한울에이치밸리움 1순위 (당해지역)	9/10 (금)	오른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엘프라우드				
			인천	연수구	옥련동	KTX송도역서해그랑블 1순위 (당해지역)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센트레빌트리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 1순위 (당해지역)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4단지		
			대구	달서구	분리동	달서SKVIEW 1순위 (당해지역)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북창라푸르지오트레시엘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자이더스타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셀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2차 1순위 (당해지역)	발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리버카운티	
			충남	천안시	직산읍	더샵천안레이크마크 1순위						계약	경기	김포시	봉무동	봉무역파크트루엘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자이 1순위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자이더스타		
			9/8 (수)	접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위례엔646	9/11 (토)	접수	경기	파주시
						경기	김포시				통진동	김포마송B3(영구임대) (~9/9)	9/12 (일)				계약
충남	아산시	모종동				모종리슈빌더스카이 (~9/9)	9/8 (수)	접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한울에이치밸리움 1순위 (기타지역)					
인천	연수구	옥련동				KTX송도역서해그랑블 1순위 (기타지역)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2차 1순위 (기타지역)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 1순위 (기타지역)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구	달서구	분리동				달서SKVIEW 1순위 (기타지역)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2차 1순위 (기타지역)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충남	천안시	직산읍				더샵천안레이크마크 2순위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자이 2순위				※(주3) 오피스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REPS											



롯데건설, 부산 괴정6구역 사업 수주

총면적 11만㎡·공사비 1574억 규모

롯데건설이 부산 괴정6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4일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괴정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괴정6구역 재개발사업은 사하구 괴정동 일원에 총면적 10만9552㎡, 지하 4층~지상 29층, 9개 동, 총 692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총 1574억 원 규모다.

롯데건설은 커튼월록과 메가 프레임 구

조물을 설치해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완성하고, 괴정6구역을 괴정역 일대의 명품 단지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부에는 언택트 재택근무 추세에 맞춘 비즈니스룸 및 미팅룸,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순환 산책길 등 특화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산에서의 풍부한 수주 실적과 검증된 시공능력을 믿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롯데건설 안에서 주거 만족감을 물론, 차별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불법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사건’ 공 넘겨받은 檢, 공수처와 갈등 재현되나

범죄 성립 여부·공소유지 가능성 등 면밀히 검토 공수처 직접기소 불가 사건 검찰로 넘긴 첫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혜채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인 만큼 검찰의 결정의 따라 공수처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 교육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 유지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을 직권 남용관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자료와 증거물 등도 검찰로 보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긴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법률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소 판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약 5시간에 걸쳐 관련 안건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자체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의 소환조사가 재차 이뤄질 수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전망이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에 공수처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점쳐진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더라도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 사건이첩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던 점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도 협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검찰이 조 교육감을 불기소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마무리 지은 첫 사건인 데다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첫 사례라는 상징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안도 가볍지

않고 향후 공소제기 요구 사건 처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만 두고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저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록과 증거관계 등 보면 결론이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기소로 결론 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신경전은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공수처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가 사안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다름이 빛나는 도시...도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조화로운 불협화음'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대회 14개 종목에 159명(선수 86명·임원 7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종합순위 41위를 기록했다. 도쿄/연합뉴스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 합헌”

현재 “국가공무원법 입법 목적 고려했을 때 원칙 위배되지 않아”

공무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기부금 모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된 A 씨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던 2015년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01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체계를 살펴봤을 때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국가공무원이라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정당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도 당내 경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정형만 중징되기에 때문에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한다. 인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

해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검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자료를 직접 살핀 인물이다. 공수처는 7월 말 법무부 검찰관실과 대

검 검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숨길 일이 아니어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숨김없이 담당하게 말하고 오겠노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작년 9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울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 원고가 증명해야”

상고심서 원심 깨고 판례 유지

대법원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 오류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 지목 등을 적은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후 1961년 8월 지적공부가 복구됐는데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됐다. 복구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A 씨의 증조부로 기재돼 있었으나 1978년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됐다.

정부는 1996년 5월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 씨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록상 일제강점기가 아닌 1981년 3월부터 토지를 도로로 편입했고 점유개시 당시에도 국가가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자유 점유 주장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점유하게 된 경우,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분할, 지목변경 당시 국가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됐다는 등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A 씨가 지적공부 복구 당시 오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분할 이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등교 확대에 학폭 피해도 늘었다

언어·사이버폭력 큰 폭 증가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피해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 100명 중 1명 이상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5일 16개 시·도교육감이 초등 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해당 학년 재학생 전체인 약 387만 명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중 88.8%인 344만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1.1%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2019년 2학기부터 2020년 10월까지)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비중이 컸다. 집단 따돌림(14.5%), 신체 폭력(12.4%), 사이버폭력(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은 초등학교(42.7%)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16.0%), 집단따돌림

은 고등학교(16.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언어폭력 비중의 증가와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높은 피해응답률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은 0.4%(1만2000명)로 지난해 조사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0.85%로 2020년 조사 당시 0.66% 대비 0.19%포인트 증가했다. 중학교는 0.16%로 동일했고, 고등학교는 0.04%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학생 비율은 2.3%(7.9만 명)로 작년 조사보다 0.02%포인트(1.2만 명)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8%, 중학교 1.5%, 고등학교 0.6%였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ksh@

도로공사, 민간기업과 '해외 유료도로 운영권' 인수

건설·자금조달 리스크 거의 없어
고속도로 관리 노하우 전수 초점
중소·중견건설사 해외 진출 견인

한국도로공사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해외 유료도로 운영권(O&M) 사업 추진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5일 민관 공동으로 해외 유료도로 운영권을 인수하는 신규 해외투자 개발 사업을 통해 해외수주 확대 등 잠재된 건설시장 판로개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신규 해외투자개발 사업은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중 인프라 공기업의 디벨로퍼 모델을 도로분야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다. 분야별 공기업이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의 총괄기획, 자본투자 등 종합 개발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운영 중인 해외 유료도로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법(Brownfield)으로 도로 등 인프라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기존 방법(Greenfield)과 비교하면 수익성은 다소 낮다. 하지만, 건설 및 자금조달 책임 등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인수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노산천안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투자해 이용요금 등으로 수익을 내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가 대표적인 예다.

여기서 브라운필드(Brownfield) 투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기업이나 시설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한 형태다. 기존 기업이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설립 비용이 적고 투자 후 조기에 정상 조업이 가능하다. 반면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다. 이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정상 조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1일 개최한 '해외도로 투자개발사업 추진' 간담회. 사진제공 도로공사

생산 시설을 통제할 수 있고 최신 생산 기술과 경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투자 대상국 입장에서 신규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사업을 발굴·주관하고,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는 운영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지원하며, 건설사 등 민간기업은 도로개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역량이 없는 민간 건설사에 도로운영에 관한 사업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민간 건설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해외도로 투자개발사업 추진 간담회'를 개최해 참여사와 함께 사업설명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한 새로운 방식 추진은 좋은 사례라고 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주도해 성공적 사례로 만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건설사에게는 운영사업에 대한 실적(Track record)을 확

보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해외 진출 기회를 더 줄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첫 사업 성공이 가장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사업 리스크를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해외사업 투자 관련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대상 사업의 현금 흐름 등이 중요하므로 안정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IND는 신규사업 중심의 민관협력사업(PPP)에서 운영중 사업 인수 추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민간기업인 대우건설은 건설시장 트렌드가 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공이 추진하는 운영중 사업 인수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팀 코리아 구성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도로공사는 2005년 캄보디아 도로 시공 감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1개국, 179건의 사업을 민간기업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현재도 14개국에서 22개 사업, 4406억 원(도로공사 투자 1593억 원) 규모의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 건설사업이 2023년 7월께 마무리되면 해당 교량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독점적 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코트라, 온라인 상품전으로 '신북방 개척'

(독립국가연합)

170개 소비재 기업 B2B 지원

대한무역투자공사(코트라)는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독립국가연합(CIS) 온라인 한국 우수상품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CIS 지역 소비재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품전에는 국내 유망 소비재 기업 170곳이 참여해 300여개 제품을 기업 간거래(B2B) 플랫폼 '바이코리아' 온라인 전시관에 소개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화상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뷰티 △식품 △소형가전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유망 소비재가 전시된다. 이중 CIS 지역에서 인기 품목인 한국 화장품 기업 102곳이 참가해 케이(K)뷰티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화장품은 매년 CIS 시장점유

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지만, 화장품 수출은 15%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CIS 지역 온라인 시장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1.1% 고속 성장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CIS 우수상품전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K뷰티 제품들을 필두로 다양한 한국 소비재를 널리 홍보해 우리 기업의 CIS 수출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장애인고용공 내달 29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5일 '2021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및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공모전'을 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주제 사업 아이템 및 실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지켜 낸 사례도 공모전 주제에 포함된다.

내달 29일까지 전자우편(best@kead.or.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심사 결과는 올 11월 말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공단은 최종 심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상(대상 1팀, 상금 300만 원), 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 각 상금 100만 원), 장려상(3팀, 각 상금 50만 원)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항현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보내준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재미 공감 품격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짹짹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짹짹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짹짹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2022 모스크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개최 안내

2022 모스크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대표로 출전할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발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선발전 개요
 - 대회기간 : 2021. 11. 8.(월) ~ 11. 15.(월) (직종별 세부일정 별도 공지)
 - 대회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직종별 경기장소 별도 공지)
 - 선발인원 : 36개 직종 별 최고득점자 1명 선발, 최고득점자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 *단, 요리(요리-개인, 요리-단체) 직종은 2인 선발
- ◆ 참가자격 및 개최직종

구분	직종	전국대회 입상자 참가 직종(21개)	전국대회 미개최 직종(15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참가자격*		- '15 ~ '19년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1위, 2위, 3위 입상자 (* 원서접수 필요) - '21년도 제37회·제38회 전국장애인기능대회 입상자(* 원서접수 불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선발전 개최 당일('21.11.8.)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자 (* 원서접수 필요)
직업기능 직종	31	웹마스터, 컴퓨터수리, 컴퓨터프로그래밍, 화웨이장식, 워드프로세서*, 전자기기, 가구제작, 양장, 양복, 목공예, 캐릭터디자인, 데이터처리*, 기계제도CAD, 시각디자인, 케이크장식*, 자전거조립, 전자출판, 귀금속공예	사진-실내, 사진-실외, 바구니만들기, 요리*(요리-개인, 요리-단체), 푸드카빙, 제분, 컴퓨터정보통신, 제빵, 제과, 용접, 미용, 신발수선, 치과기공
직업기능-기초직종*	2	양장-기초	가구제작-기초
레저 및 생활기능직종*	2	도자기	자수
프레젠테이션 직종*	1	네일아트	

- *워드프로세서 직종은 전국대회 시범직종인 (Word Processor)직종, 데이터처리 직종은 전국대회 (컴퓨터활용능력)직종, 케이크장식 직종은 전국대회 (제과제빵)직종임
- *직업기능-기초 직종은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만 참가 가능하며,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프레젠테이션 직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만 참가 가능
- *요리 직종은 2인을 선발 후, 요리-개인 직종과 요리-단체 직종에 중복 참가 예정
- *산업용 로봇, 로보틱스, 부품가공 조립 3개 직종은 국제대회 직종 성립 여부에 따라 추후 선발전 개최 예정
- *경기 일정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직종 중복참가 가능(경기일정 별도 공지)하며 중복참가 희망 시 참가직종 마다 원서를 중복 접수하여야 함
- 다수 직종에서 최고득점을 한 경우, 국제대회에 참가할 1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함

-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9. 6.(월) ~ 9. 14.(화), 방문·우편접수(당일 소인까지 유효)·이메일 접수 중 택1
 - 제출서류 : 참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장애인 증명서류 1부
 -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방문, 우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7층), 이메일(iakorea@kead.or.kr)

- ◆ 기타
 - '21년도 제37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병행 개최 예정이며, 전국대회와 중복되는 직종은 전국대회와 동일 시간·과제로 선발전이 운영되나, 직종별 경기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전국대회 미개최 직종은 직종별 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예선전을 개최할 수 있음
 - 원서접수 결과 인원이 현저히 적어 경기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종은 참가자를 추가 모집할 수 있음
 - 선발자는 해당 직종의 국제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훈련평가에 따라 국제대회 유사직종 참가 가능
 - 선발전 참가선수는 경기장에 개별 도착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인솔 가능(세부사항 별도공지)
 - 선발전 개최 여부 및 개최 일정·장소 등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선발전 참가자는 대회참가 전 개인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드리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 강화된 방역 관련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조 및 공단 능력개발지원부(☎031-728-7074/7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이제는 주식도 편해야 하는 세상
세상 쉽게 사는 주식

KB증권 **M**-able^{mini} 출시!

<p>늘 바쁜 G군도</p>	<p>주식이 어려운 A양도</p>	<p>복잡한건 딱 싫은 S군도</p>
<p>어디서나 편하게 듣는 오디오 모드 지원</p>	<p>증권전문가의 1일 1종목 추천</p>	<p>증권방송보며 바로 주식 매매!</p>

| 마블미니 출시기념 이벤트(~9.30) |

지금 마블미니 다운 받고, 미니 컨버터블도 추첨 받자

추첨경품 | BMW mini 컨버터블(1명), 아이폰12 미니(10명), 코닥 미니샷3 레트로(100명), 미니 체온 측정기(500명), 알로 미니 휴대용 청소기(1,000명)

*마블미니 설치 및 1만원 이상 충전 시 추천, 기타 경품 등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3954호(2021년8월18일~2022년8월17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영업점계좌) HTS, 홈페이지 1천만원이상 ~ 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MTS 0.1973%(대표수수료)이며, 계좌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IME CLUB RED 가입 시 최초 3개월 무료 적용되며 이후 월 1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벤트유의사항] *당첨된 고객님께는 2021년 10월 중순 이후 해당 경품을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단, BMW mini 컨버터블의 경우 KB증권 본사 수령) *정확한 개인정보(주소,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등) 등록 필수 *부정확한 개인정보로 인해 경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의 경품은 지급시점 수급상황 등에 따라 별도 공지없이 등가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경품에 상응하는 현금 수령 불가합니다. *본 이벤트는 개인(신용)정보 선택동의(편의서비스)를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추첨일 기준 개인(신용)정보 선택동의(편의서비스) 등과 관련 철회가 있을 경우,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건 충족고객 및 당첨고객 제외) *이벤트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가 경품발송 대행업체에 제공되고 목적달성 후 폐기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6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Z세대 ‘취향저격’ 위해 사운드 진정성 높였죠”

삼성전자 ‘갤럭시버즈2’ 개발진

英 싱어송라이터 찰리 XCX와 이퀄라이저 조율 음향 구현 ‘저음 강조’ 의견 반영...핏 테스트 기능 추가 착용감도 높여

‘무선 이어폰’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불과 5년. 무선 이어폰은 어느새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출시된지 불과 5년 만에 없어도 안 될 필수 아이템이 됐다. 아무것도 듣지 않아도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는 층 사용자도 크게 늘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는 무선 이어폰 출시 초기부터 이 시장의 성장세를 이끈 층 사용자가 폭넓게 포진돼 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삼성전자의 새로운 무선 이어폰 ‘갤럭시버즈2’는 MZ세대 공략을 위해 작고 가벼운 크기에 최적화된 음질을 갖췄다.

이를 위해 제작 과정에서 유명 아티스트인 찰리(Charli) XCX와 함께 이퀄라이저 조율을 진행해 취향을 저격할 음향을 구현했다. 찰리XCX는 대표곡 ‘원 나이트(1 Night)’ 등으로 잘 알려진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다.

이전 무선 이어폰 제품개발 과정에선 제품을 출시한 뒤 전문가들의 논평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개발 과정부터 음악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소속 차세진 프로는 “사전에 아티스트에게 갤럭시 버즈2를 전달해 사용하게 하고, 아티스트의 음악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업을 진행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통해 협업을 이어갔다. 찰리XCX는 음향뿐 아니라 갤럭시버즈2 제품의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감성도 전했다. 이달 2일 신곡 발표를 앞두고 관련 영상을 촬영할 때 갤럭시버즈2를 착용하고 싶다는 제안도 했었다.

협업에서 개선된 기능은 6가지 이퀄라이저 기능 중 ‘저음 강조’다. 찰리XCX가 갤럭시 버즈2를 직접 사용해 보고, 의견



갤럭시 버즈2 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병민(왼쪽부터), 김기훈, 함윤진, 차세진 프로.

교환을 거쳐 기능을 최적화했다. 김기훈 프로는 “저음 강조 모드의 힘 있는 소리가 특히 마음에 든다. 소리의 윤곽이 더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찰리XCX의 의견을 수용해, 목직한 저음역과 찰리의 목소리가 함께 돋보이는 방향으로 조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함윤진 프로는 “아티스트들이 작곡을 할 때 갤럭시 버즈의 사운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발진은 음향과 더불어 착용감에도 신경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귀에 직접 끼우는 기기인 만큼, 아무리 음질이 좋아도 착용감이 불편하다면 오래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세진 프로는 “최근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 ‘이어버드 핏 테스트 기능’이 추가돼, 이어버드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윤경림 현대차 부사장 2년여 만에 ‘친정’ KT 복귀, 성장동력 찾는다

윤경림(사진) 현대차 동차 부사장이 2년여 만에 ‘친정집’인 KT로 돌아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윤 부사장이 최근 KT 복귀 초입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사장은 최근 현대차를 떠나 KT로 복귀하는 것을 타진하고 있다.

복귀 이후 윤 부사장은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일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 부사장은 KT에서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글로벌사업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1월 현대차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오픈이노베이션전략사업부장(부사장)을 맡아 미래 성장 전략을 세웠다.

최근 KT는 ‘탈통신’ 등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구현모 대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ABC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늘리며 새 먹거리를 찾는 모습이다. 구 대표 취임 이후 ‘공동경영’ 기조가 강해진 만큼 일각에서는 윤 부사장이 사장단 중 하나로 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신설 조직이나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분야에 윤 부사장을 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美 첫 성소수자 장관, 두 아이 부모 됐다

부티지 교통장관 ‘입양’ 공개

미국 역사상 첫 성소수자 장관이 두 자녀의 부모가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피트 부티지(사진 오른쪽) 미 교통장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게시하고 두 자녀의 부모가 됐다고 알렸다. 부티지 장관은 “채스톤과 내가 부모가 됐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15년 지역 신문 칼럼을 통해 커밍아웃한 부티지 장관은 2018년 채스톤 글래스먼과 동성 결혼했다. 현재는 조 바이든 내각 최연소 장관으로 교통부를 이끌고 있다.

두 자녀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



다. 앞서 부티지 장관은 지난달 입양 과정을 마쳤다고만 전한 상태였다. NYT는 “이들 부부는 최근 몇 달간 입양을 모색했다”며 “부티지지는 임기 중 부모가 된 최초의 동성애자 장관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티지지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후 부진한 성적을 얻자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중도 하차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제12회 나라(독도)사랑 국제 글짓기 대회 ‘국회의장상’에 전남 무안 남악고 1학년 최유정 양 ‘파수꾼’



제12회 나라(독도)사랑 국제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제12회 나라(독도)사랑 국제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다.

대회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전남 무안 남악고 1년 최유정 양이 수상했다. 최 양은 독도를 지키는 깡이갈매기(천연기념물 389호) ‘나래’의 결의를 의인화한 ‘파수꾼’을 써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국내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독일 등 10개국 출신 초·중·고교생 22만6921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246명이 입선했으며 국회의장상 및 3개 상임위원장상,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 장관상, 서울특별시 및 교육감 상을 비롯한 9개 도지사 및 도 교육감 상, 안중근의사상과 동북아재단이사장 및 독도재단 이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임용혁 공동 대회장은 “대회를 통해 세계의 청소년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독도의 존재 등에 대해 분명한 관점을 확립해 미래의 국가 일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10년 인천시와 독도재단의 공동 주최로 시작해 2012년부터 주최 기관과 참가 범위를 국제대회로 확대했다. 세계 23개국에서 70만여 명이 참가하는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 대회’로 정착됐다. 매년 초 각국의 출품작을 접수해 국가별 예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을 6월 말 대회본부의 심사단이 2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김소희 기자 ksh@

부소니 피아노콩쿠르 휩쓴 한국인 박재홍·김도현 나란히 1·2위 쾌거



부소니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가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폐막한 63회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박재홍(왼쪽 사진)이 1위, 김도현(오른쪽)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5년 문지영에 이어 두 번째다. 3위는 오스트리아의 루카스 슈테이너트가 선정됐다.

박재홍은 이번 대회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고, 김도현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다.

수상 후 박재홍은 “무대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고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어 속이 후련하고 시원했다”며 “좋아하는 곡을 후회 없이 연주할 수 있어 기뻐다”고 밝혔다. 박재홍은 201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수석 입학해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정승前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취임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제8대 신임 이사장으로 정승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정승 이사장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30여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직하면서 농업구조정책국장, 농촌정책국장,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장, 2차관 등을 역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촌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통상차관보 정대진 ◇실장급 전보 △통상교섭실장 전운중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나승식 ◇국장급 승진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총합행정지원센터장강장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광역정책국장 이상준 ◇국장급 전보 △통상정책국장 김완기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과장급 전보 △통상정책총괄과장 고상미 △한미자유무역협정대협과장박성진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권혜진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안창용 △투자정책과장 최영수 △경제자유구역기획과장 최규남
-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용욱 ◇국장급 승진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이명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우진 △토지정책과장 김명준 △주거복지정책과장 성호철 △공공주택정책과장 이기봉 △청년정책과장 정승이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신홍섭
-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장 신동준 △초전도연구센터장 하동우 △시스템제어연구센터장 이현구 △차세대전지연구센터장 엄승욱 △나노융합연구센터장 정희진 △전기의료기기연구센터장 김석주 △대전력시험실장 유정현 △고전압시험실장 이상운 △스마트그리드시험실장 김지환 △품질표준화관리실장 최익순 △경영기획실장 고성주 △사업관리실장 백창제 △인력개발실장 김기홍 △재무

- 실장 조진상 △구매자산실장 강석률 △안전보안실장 유정준 △운영관리실장(광주) 조현길 △기술사업화실장 김용주 △기업총괄지원실장 서길수 △대외협력실장 문소민 △감사실장 오경연
- ◆KBS △보도본부 뉴스제작3부장 김도엽
- ◆한겨레 ◇부장 △스페셜콘텐츠부장 임인택 △콘텐츠기획부장 박현철(이상 편집국 디지털미디어 부문) △국제부장 김윤형 △사진부장 이종근 △사회부장 김남일 △정치부장 최해정(이상 편집국 이슈 부문) △경제산업부장 김수현 △사회정책부장 정준우 △토요판부장 홍석재(이상 편집국 정책기획 부문) ◇편집장 △한겨레21부 황예랑 ◇에디터 △수석에디터 김희승 △사회에디터 이재명 △정치에디터 성연철

부음

- 20여년간 동진상선 이끈 오신근 명예회장 1992년 동진상선 대표이사에 취임해 세계 70위권 컨테이너선사로 키운 오신근 명예회장이 4일 오전 5시 29분께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회사 관계자가 전했다. 향년 89세(만).
- 1932년 1월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61년 3월 대한해운공사 도쿄 지점 주재원, 1969년 일본 세계해운 부사장을 거쳐 1970년 일본에서 삼영해운을 설립했다.
- 흥아해운과 동진상선의 일본 대리점 역할을 하던 중 1992년 위기에 빠진 동진상

- 선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해 20여년간 회사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 유족은 부인 임행자(동진상선 회장) 씨와 아들 오용환(동진상선 사장) 씨가 있다. 빈소는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7일 오전 4시 30분. 051-550-9981
- ▲김경식 씨 별세,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씨 장인상 = 4일,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5호 분향실, 발인 6일 오전 9시, 02-2290-9442~3
- ▲김만례 씨 별세, 박진관(프로축구 경남FC 대표이사) 씨 모친상 = 5일, 부산 해운대 백영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7일 오전 9시, 051-893-444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위기관리 예산인지, 경제재건 예산인지, 신복지 예산인지, 아니면 정부가 승부수로 내민 한국판 뉴딜 예산인지, '예산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정치가 예산에 깊이 개입하고, 여기에 정권 말기에 관료들의 태만이 합쳐져 만들어낸 '망라형 예산 차림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 원으로 발표됐다. 올해 558조 원에서 8.3% 증가한 것이다. 연말까지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 틀에서 그다지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예산은 현 정부가 상반기분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전례 없이 두 정부를 아우르는 성격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9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특수한 사태가 없었다면 종래대로 2월 말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것이다. 정권의 마지막 예산은 현 정부가 짜고 쓰는 일은 다음 정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산의 공유'라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은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이미 짜 놓은 첫해 예산을 확 바꾸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콘텐츠

를 세계 흔드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 정부의 영향력이 상반기까지 미치지 때문에 두 정권의 협치가 없으면 예산의 타이밍과 집중력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반 넘게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위기 상황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작년 중반부터 코로나19 전 상태로 경제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일부 산업과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한 착시 현상, 예상외의 세수 증대와 자금 살포로 인한 것이지 국민이 실감하는 경제회복은 아니다. 경제회복은 여전히 냉엄하고 회복 기조는 푸석푸석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자. 정부는 600조 원을 넘는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4대 투자 중점 방향을 밝혔다. 경제회복(글로벌 강국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삶의 질 제고(강인한 나라)이다.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비 8.5% 늘어난

216조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5%를 차지해 사상 최고의 예산 비중을 기록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무려 14.3% 늘어난 96조8000억 원, 교육 분야는 83조2000억 원으로 16.8%나 늘어났다. 이 상위 3대 예산 종목은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정치적 포퓰리즘 냄새를 지우기 어렵다. 단년도에 쓰고 지나가는 소모성 예산이다.

국방 예산은 55조2000억 원으로 4.5%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9.1%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내년도 일본의 방위비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다. 예산안에서 20조 원대에는 연구개발(29.8조 원), SOC(27.5조 원), 농수산(23.4조 원), 공공질서·안전(22.4조 원) 분야가 포진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비 6.0% 늘어난 30조4000억 원으로 30조 원대에 진입했다. 다른 한편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양극화·사회안전망, 청년지원대책, 소상공인 위기지원, 출산·보육, 탄소중립, 백신·방역, 지역균형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3층 예산구조(투자중점방향-분야별 재원배분-사업별 예산)는 예산 전문가들도 난수표처럼 난해하다고 한다. 예컨대 위기관리 예산인지, 경제재건 예산인지, 신복지 예산인지, 아니면 정부가 승부수로 내민 한국판 뉴딜 예산인지, '예산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정치가 예산에 깊이 개입하고, 여기에 정권 말기에 관료들의 태만이 합쳐져 만들어낸 '망라형 예산 차림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공급자)들이 만든 철저한 톱다운 예산이다. 정책수혜자(수요자)들의 긴급한 수요는 한가한 미사여구에 묻혀 버린 꼴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바이든 정권이 내세운 '과학기술 선도 국가론'에 기반한 신산업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에서의 과학 기반의 정책결정은 복잡다단한 예산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디지털 전환)보다 폴리스 트랜스포메이션(PX·정책 전환)이 더 실질한 시점이다.

세계 프리즘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전 SK 사장



국제정 흥맥스를 통해 5대 그룹 주력 5개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생활건강, SK텔레콤, 롯데쇼핑)의 기부금을 추정해 봤다. 이들 5개 기업의 추정 기부금은 3425억 원, 이 중 기부금 투명성 검증의 3단계로 불리는 공시·감사·평가를 모두 거친 규모는 149억 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했다. 나머지 96%가 투명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대기업들이 기부금 지출의 투명성에 관해서 스스로의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무관심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다.

기업 사회공헌의 한 축인 기업재단도 투명성의 사각지대이다. 앞서 언급된 5개 기업은 소속 그룹과 특수한 관계의 기업재단에 총 기부금의 40% 정도를 기부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단 3곳만이 공시·감사·평가의 3단계를 완료해 투명성 검증을 받았다. 내 돈으로 기부했기에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배경이다.

기업 기부금과 ESG경영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업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비교세의 혜택을 받는다. 2019년 추정 기부금 8조 원에 평균세율 15%를 적용하면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돈이 세금으로 걸리지 않고 좋은 곳에 쓰이고 민간에 유보된 셈이다. 결국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국가의 혜택을 받은 공공의 자산이지 개인이나 기업이 제멋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정부는 이 돈의 쓰임새를 검증해야 하고 이것이 국가 경영 원칙의 하나인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더욱이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기에 그 필요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오톤나 최고경영자가 횡령이나 분식에 연루되어 사법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외로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한다.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사외이사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감사지정인제를 도입하고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를 제한한다.

그런데 기부를 잘못해 곤욕을 치른 경우도 많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이 비근한 사

례다. 이게 화근이 되어 삼성전자는 ESG 평가의 한 지표인 2018 MSCI 코리아리더스 지수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기업은 기부에 대해서는 제도적 제한과 기준이 거의 없다. 이 틈새를 사이비 공익법인이 파고든다. 문자마 성금, 깜깜이 기부 권력을 끼고 정실에 따라 성행하는 이유다. 기업 사회공헌의 본령인 사회와의 접점은 좁아지고 사업과의 연결만 두터워진다. 기업의 선한 뜻으로 집행된 기부금이 회사를 위기로 몰고 공동체를 좀 먹는다. 기업은 지탄을 받고 사회는 병들어 간다.

기업의 기부 의사결정이 이러서는 안 된다. 정의기억연대 같은 단체도 한국가이드스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클릭 몇 번만 했으면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눔의 집은 아예 공시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도 기업은 거액의 기부를 했다. 개인이야 몰랐다 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주주나 투자자, 지역사회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있는 기업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ESG경영

에 기업 기부금 집행의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ESG의 평가과정에서 기부금 지출의 투명성이 반드시 검증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감사의 이행은 물론이고 모금비용과 사업비용의 비율, 사회적 물의와 사회적 가치를 계량해 기부금 지출의 평가에 필수적 사항으로 산입되도록 하자.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이 기부금 집행에 어떤 기준으로 임했는지를 검토해 지속가능 보고서나 ESG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나아가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기업 이사회에 설치된 ESG위원회는 기부금을 받는 기업재단이 같은 계열이라도 공시·감사·평가의 세 단계를 거쳤는지 심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재단이 부당내부거래나 경영권 승계의 편법적 도구라는 일부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도 ESG경영의 성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는 문화로 완성된다. 기업이 기부금에 대한 제도를 ESG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문화로 실천하면 사회는 공동체로서 그 지속가능성을 확고히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루치아노 파바로티 명인 "음악감상은 두뇌가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레퍼토리, 높은 음역에서 멀리 뻗어 나가는 맑고 깨끗한 음색이 장점인 이탈리아 테너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불렸다. '라보엠'이 그의 대표적인 명반으로 손꼽힌다. 헤르베르트 폰 카리얀과 대중적인 지도가 가장 높은 클래식 음악가로 평가 받았다. 네 번 내한공연을 가진 그는 오늘 채장암으로 눈을 감았다. 1935~2007.

☆ 고사성어 / 일일부작백일불식(一日不作百日不食)

'농부가 하루 일을 쉬면 백 일 동안의 양식을 잃는다'는 말이다. 준비가 없으면 나중에 곤란을 받는다는 뜻이다. '평상심이 도이며 마음이 곧 부처'라고 일갈한 당(唐)나라 고승 백장(百丈) 회해선사(懷海禪師)가 실천한 옛일에서 유래했다. 선사는 '청규(淸規)'라는 수행자의 생활규칙을 만들어 실천해 다도(茶道)는 물론 예법이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출전 사기(史記).

☆ 시사상식 / 쉬코노미(SHEconomy) 여성이 경제 주체로 활발한 소비 활동을 벌이는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she'와 'economy'의 합성어이다. 미국 여성 소비자들이 전체 구매 결정에서 85%를 담당하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에서 처음 사용했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 무렵부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 우리말 유래 / 까불다 경망하게 행동한다는 말. 키에다 곡식을 올려 놓고 위아래로 흔들며 잡물을 날려 보내는 키질을 '까부르다'고 한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전신이 다 아픈 병 병원에 온 부인이 의사에게 "전신이 다 아파요"라고 했다. 부인이 검지로 무릎에 대고 아프다고 했고 눈과 턱에 대고도 이내 아프다며 울었다. 의사가 잠시 있다 내린 진단. "아! 손가락이 부러졌군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 다 원 IT중소기업부/leedw@

상생과 독점 사이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유럽연합(EU)도 빅테크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제2, 제3의 갑질 방지법이 생겨날 가능성도 크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강제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인앱결제의 핵심은 수수료다. 앱마켓이 제공하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개발사는 결제금액 일부를 앱 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외부 결제시스템을 쓰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니 일종의 '사용료'처럼 느껴진다.

지구 전체의 앱 마켓 시장을 양분하는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고, 나아가 더 큰 이익을 위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모습은 어딘지 익숙하다. 플랫폼과 입점사 간 갈등의 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배달 앱과

지역업자, 모빌리티 기술 기업과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갈등을 지켜봐 온 입장에선 복잡한 마음이 든다. 네이버와 카카오 기사에 으레 달리곤 하는 "작작 좀 하라(사업을 확장하라)"는 댓글도 떠오른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중소 사업자나 입주사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최근 급증하는 모습이다.

'세계 최초'인 만큼 한국이 만든 빅테크 규제 법안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법안에 기빠하며 "나는 한국인"이라고 선언한 미국인 CEO까지 있으니, 국내 IT 산업계와 정부·국회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점차 공고히 해나가는 한국산 IT 공룡들의 고민도 깊어져야 할 때다. 상생과 혁신 사이에서 적절한 해답을 찾길 기대해 본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성장잠재력과 창조적 인적자본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최근 출판된 그의 저서 '모방과 창조'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 교수 본인의 지론이기도 한, 5년간 1%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0%의 잠재성장률 시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과거 우리 경제의 성공 요인이었던 추격형 모델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엔진 자체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 교수는 내생적 성장론자답게 그 해법을 인적자본의 확대에서 찾고 있다. 내생적 성장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확대가 고도성장 달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인적자본 확대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과거와는 다른 창조적 인적자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교육이 중요해진다. 굳이 김 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입식이 아닌 창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극히 타당한 결론인데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안타깝게도 교육의 모든 목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 若烹小鮮 (약팽소선)

건국대 석좌교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가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대학입시 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만 창의력에 집중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수시 선발의 확대 같은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 모색이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사례가 나오면서 이러한 변화가 주춤해지거나 심지어 후퇴까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육 개혁의 성과 달성에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도 바로 이 점을 추구했던 것이다. 추격형 경제를 우리가 가능한 분야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자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창의성의 발휘는 현장에서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길이 과감한 규제 혁파에 있다고 본다. 이미 이 난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목표로 내세웠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그 성과가 미미했던 것은 규제로부터 이득을 보는 규제 기득권 세력과 많은 문제를 규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규제 신봉

론자들 때문이다. 규제가 많은 곳에서 창의력이 발휘될 여지는 매우 적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어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 해법이 나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한다.

김 교수의 아이디어 중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개인에게는 소득세 감면, 신생 창업기업이나 기술혁신을 지속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해주자는 것이다. 확실히 일리가 있긴 한데, 김 교수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그 대상을 구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세제상 혜택은 이른바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피케티와 같은 소득분배 우선주의자들이나 샌델, 마코위츠 같은 능력주의 비판론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세 감면이 불공평을 초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반대가 세제 개혁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성장 동인을 찾아야 하며 창의력과 이를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차근차근히 수행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설

금리인상 안먹히는 집값 상승·'빚투' 급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시작됐음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빚투' (빚내서 투자)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는 것으로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1%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매매가격이 0.21% 상승했고, 인천 0.43%, 경기도는 0.51%나 뛰었다.

집값은 더 오를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8.1로 전주(107.3)보다 0.8p 높아졌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2·4대책' 후속조치로 신도시 건설을 통한 수도권 12만 호와 세종·대전 2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밀고, 실제 주택 공급까지 소모되는 기간이 매우 길다.

'빚투'도 금리인상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용자가 2일 기준 25조2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잔고는 8월 25일 24조4573억 원이었지만 금리인상 이후 오히려 6거래일 연속 증가해 6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

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1.5%로 별로 높지도 않다.

연내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도 한 차례의 0.25%p 인상만으로는 여전히 완화적 수준임을 강조한다. 돈줄은 앞으로 더 조여진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줄이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묶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회동해 부동산 등 자산 버블과 금융 불균형에 강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가 예고된다.

정부의 거둬들인 고점(高點) 경고, 금리 인상, 돈줄 틀어막기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빚투가 증가한다. 전방위로 정책수단을 쏟아붓고 있지만 시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결국 집값이 핵심인데, 대출을 막아 수요를 누를수록 시장은 집값이 더 오른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커진다. 집값·전셋값이 뛰어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총량규제로 묶으면 대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은 금리가 훨씬 비싼 2금융권 등으로 밀려 부채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금융정책의 한계만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동원할 수 있는 정책도 더 이상 찾기 어려운 게 문제다.

노트북을 열며



하유미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유권자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서양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양인은 다 비슷비슷하다.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좀처럼 구분이 안 된다.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딱 이런 느낌이다. 무려 12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그 나뭇잎 그 밥이다. 저마다 국민의 큰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오지만, 그냥 이구동성으로 "공급 늘려 집값 내리고 세금 좀 줄여주겠다"고 하는 것만 같다. 현미경 검증 수준으로 들여다보아 그나마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정도다.

6월 29일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려 2개월 동안이나 캠프 내 정책팀은 물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며 외부 싱크탱크를 마련하는 등 공약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드디어 공개한 첫 공약은 어김없이 '부동산 정책'. 윤 전 총장은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 드리겠다"며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전문가들은 다소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현 시장 판도를 확 바꿀 만한 새로운

구상이라기보단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라는 느낌이 더 크게 와닿은 모양이다. 집값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이 '청년원거주주택'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건설원거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 가구에 대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세율 인하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같은 당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원거주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 및 인천 공항 부지에 20만 호를 건설원거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가치성장주택'과도 비슷한 느낌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생애 처음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투자하는 '반반주택'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도심 내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것 등은 제가 이미 제시했던 공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다들 한마디씩 했다. 원 전 지사, 유 전 의원 등은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며, 윤 전 총장은 시장 혼란

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 폐지 이후 대안, 이 법을 어떻게 손볼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무려 30여 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다"며 "우리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공약이 대표적이다. 외교통으로 알려진 박진 의원이 "G7을 넘어 G5를 지향하는 '매력 있는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교집합이 생겨 버렸다. 그 외에도 줄줄이 나오는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등 해결책들도 내용만 보면 어떤 후보의 공약인지 영 구분이 힘들다.

국민들이 뽑아줄 것만 같은 공약에 매몰되기보단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지에 초점을 맞추면 답은 더 선명해질 것 같다. 유권자들은 공약보다 인지도에 더 쏠린다는 정설도 있다. 하지만 현 시대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

jscs508@

미리 보는 한 주 '가계대출 조이기' 효과 있었을까

이번 주에는 국제수지, 가계대출, 국가재정 관련 최신 통계가 잇따라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의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공개한다.

한국은행은 7일(화) '7월 국제수지(잠정치)' 결과를 내놓는다. 6월 경상수지는 88억5000만 달러(약 10조12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작년 5월 이후 14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7월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수출 554억4000만 달러, 수입 536억7000만 달러로 7억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경상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가 예상된다.

KDI는 같은 날 '9월 경제동향'을 공개한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대외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KDI는 5·6월에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진단했으나, 7월에 다시 변이 코로나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한 데 이어 8월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은은 8일(수)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등을 포함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7월의 경우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과 공모주 투자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6월 말보다 9조7000억 원 또 늘었다. 이 증가폭은 6월(6조3000억 원)보다 더 커진 것으로, 7월 기준으로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요구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이 일제히 '대출 조이기'에 나선 만큼 8월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금) 발표하는 7월 기준 '월간 재정동향'에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올해 1~6월 국제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1~6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64.3%로 작년보다 17.7%포인트 높았다. 경기 회복세와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인데,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세수 증가 폭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유해가스 걱정 없는 강력한 화력 | 어떤 오염에도 강한 쇼트세라믹 글라스 | 한글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대화형 알림창

BESPOKE 키친 *for you*



마음을 전하기 좋은 가을, 고마운 가족에게
BESPOKE 인덕션을 선물해보세요

- 1. 구형 식기세척기&인덕션(가스레인지) 반납 시, 최대 50만 보상
- 2. 삼성인덕션구매 시, 더플레이트 인덕션1구 무상증정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매장에서 확인해보세요! (21.09.01 ~ 09.30)



가전을 나답게.

WANNA BESPOKE
BESPOKE 인덕션

* [프로모션] 대상 모델: 식기세척기(DW60A8575**, DW60A8375**, DW60T8075FG), 전기레인지(NZ64T9787TG, NZ63T9770**, NZ63T8770**, NZ63T7757CK, NZ63T6777MR, NZ63*8858**, NZ63A8708**, NZ63T5707AK, NZ63T5703AK)
* 보상 혜택은 포인트, 캐시백 등 매장별로 상이하며, 모델마다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매장에 문의 바랍니다. * 삼성전자 멤버십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매장에 문의 바랍니다.
* [프로모션] 대상 모델: NZ63*8858**, NZ63*8708** 중형모델: NZ31T3703PW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 모델에 한하여 예고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측 대화구 단독 동작 시 최대출력은 3300W입니다.
* 3구 동시 사용 가능하며, 2개 이상 화구 동시 동작 시 제품 최대 출력 범위(3400W)에서 화구별 출력을 지동으로 조정됩니다.
* 화이트 글라스 번쩍 시험비교: 상판 글라스 시편을 감치에 180시간, 70°C로 침적하는 번쩍 테스트 후 색차계 측정 결과 색차값 1.0 이하로 (0.28) 번쩍을 정량리 확인 (자사 검지 가속화 시편 테스트 결과)
* 자사 실험치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